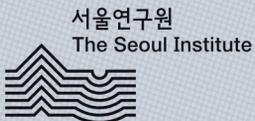


2016-CR-06-05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6-05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 내 자원의 흐름

소준철 이민재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 내 자원의 흐름**

연구책임

소준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학전공 박사과정

이민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전공 박사과정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경로당, ‘끝나지 않는 노력’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자원이 모이고 쓰이는 플랫폼

경로당은 봉사활동·물품제공 등 민간지원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 연구는 다음의 문제를 풀고자 했다. 지역 내에서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교환·공유하는가. 노인들은 도시의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특히, 식생활에서 조달하여 온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북아현동은 여러 시간대가 켜켜이 조밀하게 쌓인 공간이자 고립지역 개발(enclaved development) 방식에 의해 경제적 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주거지역 여러 개가 위치한다. 즉, 북아현동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집단주거지역(enclave)이다. 북아현동에서도 현행 노인법과 지역 노인들의 요구가 만나 만들어진 공간인 경로당과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광범위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정책과 요구가 만나는 공간이고 지역사회 단위의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물품제공’과 같은 민간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조사 방법으로 경로당과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참여관찰을 택하였지만, 이는 경로당의 진입과 생활세계의 인식,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서였다. 노인들과 어느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고, 주요한 연구 대상을 설정한 이후에는 한 노인(A)의 생애사를 서술하며, 그녀의 현재 생활세계에 대한 민족기술지(ethnography)적 방법을 택했다.

A의 삶은 다음과 같다. A는 나이에 상관없이 ‘노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전쟁통에 월남하여 고향사람들 덕에 자리를 겨우 잡아 살았다. 개발과 독재의 시대에는 중동에 간 남편과 떨어져 친척 몇을 두고 홀로 아이 셋을 키웠다. 부족한 돈을 벌겠다고 인천에서 물건을 떼어 서울에다 팔았다. 장사꾼이었다. 그녀는 이 삶을 통해 “삶의 노하우”를

언어낸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 몸이 늙어도 쉬기 힘든, 그녀의 노력은 끝날 수 있을까? 매년 초가 되면 일자리 사업의 공고를 보고, 다른 노인들과 눈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은 끝날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키가 적어[작아] (아이들이) 키만 크게 자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후회해. 잘 살 거라고 할 걸”이라는 후회를 멈출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 “끝나지 않는 노력”은 청년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있다. 여기에는 노후 보장을 상상하지 못하며 늙은 저 세대의 그/녀들의 단면이기도 하다. 아마 경제위기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궁핍해진 베이비붐 세대들에 비하면 (더 나은) 근 미래가 아닐까.

사회보장제도·일자리 정보, 먹거리가 한데 모여 있는 플랫폼

실상 한 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A는 이 서울이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척 놀랍다. 그럼에도 삶에 필요한 최저물품을 상정하고, 각 물품을 구하는 각각의 노하우가 있다. 여기에는 앞서 생애사에서 살펴보았지만, 자원을 연계하는 인물, 기관에 대한 이해와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작동한다. 경로당은 역동적이며, 활기차다. 경로가 어찌 되건 간에, 경로당은 노인들에 필요한 많은 자원이 모이고 쓰이는 공간이다. 그래서 단순한 여가의 공간이 아니라 임원을 구성하는 등의 위계적 특성을 가진다. 이들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고, 방어를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경로당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청과 대기 소식, 일자리 정보나 활동프로그램, 먹거리 등이 한데 모여 있는 노인들의 플랫폼(platform)이다. 이 경로당이라는 플랫폼에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바로 식사 자리다.

A의 식생활은 ‘함께’ 먹는 식사와 ‘혼자’ 먹는 식사로 구분할 수 있다. A 역시 누군가와 함께 먹는 자리는 주로 경로당이다. 그리고 함께 외식한다 해도, 경로당의 사람들과 함께다. 이때 식사는 경로당 생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경로당을 벗어난 A는 대개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럼에도 개인의 생계비, 도시락배달 사업, 지역 내 민간의 지원을 통해 얻은 반찬과 짙은 경로당 생활에서 건진 정보와 이로 인한 자신의 ‘노력’으로 받아 온 것들이다. 이때 식사는 경로당 생활의 결과이다. 즉, 식사와 경로당은 함께 유기

적으로 결합된 한 덩어리이다. 자원을 조달하고, 이용하고, 공유하는 과정이자 결과인 셈이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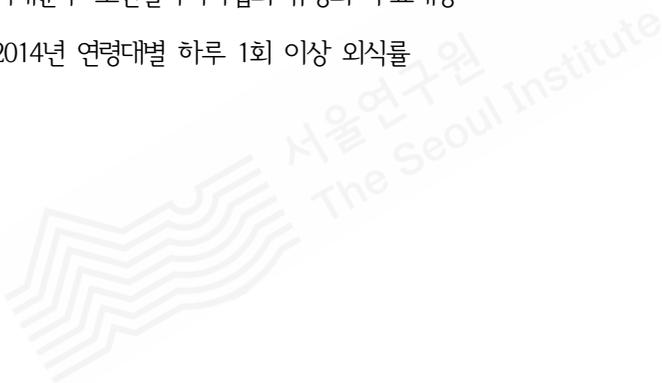
01 들어가면서	2
1_연구 배경과 목적	2
2_연구문제	5
3_연구방법과 연구대상	5
02 ‘되풀이 인생’, 끝나지 않는 ‘노력’	14
1_A를 만나다	14
2_어린 시절과 한국전쟁 경험	15
3_인천의 ‘A 순경’	17
4_서울살이와 ‘장사끼’	19
5_돌아온 남편과 자녀 교육	24
6_부모이자 노인인 그녀	26
03 돈과 먹을거리가 흐르는 경로	30
1_A의 생활과 노하우	30
2_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원조달	36
3_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조달	51
4_경로당 활동과 자원조달	56
5_사적 자원을 통한 자원조달과 공유	68

04 도시노인의 한 끼 식사	78
1_‘함께’ 식사	78
2_‘혼자’ 식사	90
3_한 끼 식사가 지니는 의미	93
05 나오면서: 결론 및 정책 제언	96
참고문헌	103



표

[표 1-1] 구술 진행표	10
[표 3-1] A가 조달하는 자원과 조달/교환/이용	33
[표 3-2]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노인관련 사업 보조금 목록	45
[표 3-3] ○○종합사회복지관 밑반찬 서비스 목록	46
[표 3-4] 서대문구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주요내용	53
[표 4-1] 2014년 연령대별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88



그림

[그림 1-1] 북아현동 전경	5
[그림 2-1] A의 가계도	15
[그림 2-2] 새마을부녀회 사진	21
[그림 2-3] 1969년 5월 9일 북아현 시민아파트 조감도	23
[그림 3-1] A와 생활관리사를 통한 관계도	49
[그림 3-2]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관계도	60
[그림 4-1] A의 주요 일과와 식사	78
[그림 5-1] A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흐름	97

01

들어가면서

- 1_연구 배경과 목적
- 2_연구문제
- 3_연구방법과 연구대상

01 | 들어가면서

1_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서울의 공공복지전달체계 모형은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모델을 설정하고, 동 주민센터 내부에 행정자치팀(11명), 선별적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1팀(5명), 보편적 복지를 총괄하는 복지2팀(6명)과 같은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도 같은 궤를 그리는데,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역 내의) 서비스에 연계하는 ‘사례 관리’를 동 주민센터의 주된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¹⁾ 그러나 이 ‘체계도’가 합리적으로 보이기에 기존 제도에서 발생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²⁾ 하나의 환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통해 모든 이가 이 ‘복지체계’를 경험할 수 없으며, “사례 발굴”이란 가장 시초의 전달체계 역시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상위계층 혹은 차차상위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처지를 되살필 필요가 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는 행정 개념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인 비수급자로 정의되었다. 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때문에 비수급 빈곤층 수(103만 명)가 수급자 수(147만 명)와 맞먹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수급자이지만, 재

1) 이현주, 2016, “서울시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특징과 이슈”, 『서울경제』 131: 12-19쪽.

2) 이현주, 2016: 18쪽.

산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2015년 12월 30일,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하여 법개정을 통해 ‘육구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되었고, 차상위계층의 규모와 속성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를 포함하는 빈곤정책의 대상은 340만 명에서 개정 후 414만 명으로 확대되었다.³⁾ 그럼에도 건강보험료 방식인지 소득인정액 방식인지와 같이 재산과 소득의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대상자라도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적절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없이 매끄러운 개정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⁴⁾

특히나, 빈곤한 노인들은 결핍된 자원을 가진 자들로 상정되어 ‘수급’ 혹은 ‘수혜’, 심지어는 ‘시혜’의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육구별 특성”이란 단어들이 의미하는바, 게다가 “급여(혹은 자원) 제공의 지속성 여부”라는 정책적 용어 앞에서 빈곤한 사람들의 삶은 제도의 ‘기준’이 아니다. 빈곤의 정도란 수급자-차상위계층과 같은 지원을 위한 행정적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난을 성공적으로 증명하길 요구한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위해선 항시 자신의 결핍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행정적인 소모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겠으나, 민·관 협력체계 역시 제한적인 체계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령, 바우처를 중심으로 서비스 ‘시장’이 확장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하지만 한편으로 시장과 같은 ‘규제 장치’를 설정해야, 일정한 가격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게다가 복지전달체계가 기존의 ‘파트너’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 체계 자체가 고정되어 버려, 지역 내부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이 같은 문제들은 실상 빈곤을 행정의 소산으로만 살핀 결과들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와 한 사람

3) 보건복지부, 2013,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 28쪽.

4) 류정희, 201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방향”, 『보건복지 Issue & Focus』 288호.

둘러싼 자원과 제도의 지도를 그릴 것이다. 가령,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상위 계층에 속할 법하지만, 재산의 문제로 행정적으로 복지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며 일하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은 무언지를 살펴며, 지역 내에서 공공복지체계를 비롯해 사적 체계를 통해 어떤 자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성노인의 생활을 그려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사회적 문제로서의 여성노인이 아니라, 여성노인의 언어를 따라 그녀의 삶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그 일’과 ‘기준’이 가진 문제적 성격이 아니라,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 “어떤 세계에 속해, 어떤 생활과 경험으로, 이런 사유를 가졌는지” 등을 바라보자는 문제를 내포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전달 체계(광역-기초-동)를 통한 공공부조”의 경험적 관찰이자, 한 지역에서 지역 내부에서 (사회복지학적인 언어로는) “비공식적인 복지자원”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해석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생활을 훑아보며, 그녀가 속한 생활세계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를 통해 도시노인의 도시살이를 통해, 도시노인의 생활세계를 작성한다.

우선 통계적 언어가 아닌 방법으로 ‘도시 노인’의 생애와 현재를 보고한다. ‘도시 노인’은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정의가 아니라, 도시에서 생활하는 특정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도시’는 현대의 도시 생활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형용사라는 제안을 받아들인다(윌리엄스, 2010/1983: 78-79쪽 참조). 그러므로 도시 내부에서 “의식주 생활과 더불어 타인과의 만남과 모임(정수복, 1996: 47)”뿐 아니라 생활과 만남과 모임이 가능케 하는 경제활동까지 포함하는, 도시노인의 “생활세계”를 재구성할 것이다.

2_연구문제

첫째, 지역 내에서 노인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조달·교환·공유하는가.

둘째, 노인들은 도시의 어떤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셋째, 특히 식생활에서 조달하여 온 자원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3_연구방법과 연구대상

1) 북아현동이라는 공간

2015년의 연구(소준철·서종건, 2015)는 폐지수집 여성노인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참조하기 위해 더 넓게 아현지역⁵⁾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테면 폐지를 수집하는 활동공간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그 장소에서 이뤄지는 자원의 흐름을 살펴본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활동들이 이뤄지는 공간, 생활공간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공간적 범위를 북아현동으로 좁혔다. 연구를 통해 한 지역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본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 이번에도 북아현동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듣는다.



[그림 1-1] 북아현동 전경

5) 마포구의 아현동, 서대문구의 북아현동과 충현동을 통칭하여 아현지역으로 불렀다(소준철·서종건, 2015: 36쪽).

북아현동은 다음처럼 스케치할 수 있다.

재개발로 시골벽적인 북아현동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몇 공간이 있다. 경의선 철길 위에 만들어진 작은 공원, ○○대학교 종합복지관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연구자 중 하나가 몇 달을 지낸 고시원 등이 있다.

북아현동의 구조는 고시원의 구조와 꽤 유사하다. 높은 건물은 비싸고, 낮은 건물은 그 값이 싸다.

또한 1층에는 목욕탕이 있고, 2층부터 뭔지 모를 사무실 간판이 붙어있고, 3층과 4층과 5층엔 고시원이 있다. 고시원은 남성과 여성의 방이 분리된 곳이 아니다. 단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방의 크기가 커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게다가 건물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다고 상상해보자.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러니까 건물의 외벽에 가까운 쪽은 그 값이 비싸고, 공간을 나누기 위해 중심부에 몰려있는 집들은 그 값이 싸다. 도로가 잘 닦인 테두리 쪽은 그 값이 비싸다.

테두리에 위치한 높은 재개발 아파트, 서쪽 테두리에 자리한 “아현동마님”의 무대인 충현동의 고급주택가⁶⁾는 그 값이 무척 비싸다. 그다음으로 그보다는 낮은 오래된 1990년대의 아파트가 몇 단지 흩어져있다. 그리고 동네의 가운데 쪽에는 부동산의 뜨거운 열기로 만들어진 원룸이 빼곡히 들어찬 다세대주택과 해방 후에 상경한 사람들이 살았던 (수리가 필요한) 한옥집들이 위치한다. 동쪽 테두리는 산자락이 있고, 그 아래 지역에는 1960년대 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아파트⁷⁾가 있었고, 오래된 골목 옆에 길만큼이나 오래된 시멘트 기와지붕집들이 빼곡히 자리하는데, 그 값이 무척 싸다.

6) 연구자는 그 자리가 본래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지내던 큰 평수의 집이라는 소문을 들은 바 있다. 그리고 알려지다시피 일제 강점기기에 이완용이 700여 평의 땅을 가진 동네였으며, 인접한 충현동에는 조선일보 사주인 방응모의 주택이 있었다고 알려진다.

7) 1968년, 현재의 경기대 부근에 시민아파트, 그 이후에 시범아파트가 들어섰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이후에 정책 변화로 허물어트렸고, 철거에 반대하며 버텼던 마지막 아파트는 2015년에야 철거됐다.

서울의 한 행정동 내부에서 집의 싸고 비싼 정도 차가 이 정도로 큰 곳은 많지 않다.

북아현동은 풍경을 보고, 여러 시간대가 켜켜이 조밀하게 쌓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경계를 이루고, 서로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립공간(enclaved place)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립지역 개발(enclaved development) 방식에 의해 경제적 처지에 따라 형성된 집단주거지역 여러 개가 위치한다. 정리하자면, 북아현동은 특정한 민족의 집단주거지역(ethnic enclave)과 달리, 경제적 상황에 따라 형성된 집단주거지역(enclave)이다.

이곳에는 노인복지시설은 그리 많지 않다. 복지관은 개신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 아현역을 기준으로 2km 내에 있기는 하지만, 안산 등성을 넘어야 하는 탓에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가까이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다. 이외에도 조계종의 한 사찰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아현동에 3개의 경로당과 충현동에 4개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종교기관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특히, 3곳의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교회는 참여자들에게 쌀 1kg을 제공하고, 선별된 노인들에게는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구세군은 근방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생필품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복지관, 주민센터 내 노인대학, 앞의 종교기관 내 경로대학이 있다. 북아현동 내부에서 지역 교회는 노인들이 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기관이다.

다시 말하자면, 다양한 집단이 주거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지역자원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2) 연구방법과 연구대상

이 연구는 현행 노인법과 지역 노인들의 요구가 만나 만들어진 공간인 경로당과 그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광범위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정책과 요구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제도나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물품제공’과 같은 민간지원이 이루어진다.

한계도 존재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현장의 일원과 관련된 연구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복지(지원사업, 시설을 포함한 서비스) 사각지대와 이로 인한 소외 주민’을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포괄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가령 경로당은 사각지대가 아니며, 제도의 한 축이기에 문제화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가 결핍 자원이 없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문제화할 필요가 없는 노인에 대한 연구라는 지적은 설부른 우려이다.⁸⁾

조사 방법은 경로당과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참여관찰을 택하였지만, 이는 경로당의 진입과 생활세계의 인식, 그리고 경로당 노인들과의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서였다. 노인들과 어느 정도의 라포가 형성되고, 주요한 연구 대상을 설정한 이후에는 한 노인의 생애사⁹⁾이며, 그녀의 현재 생활세계에 대한 민족지술지

8) 기시 마사히코(2016: 19쪽)의 말을 빌리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는 “남의 이야기를 분석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편적인 만남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단편적인 인생의 기록이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한다거나 그대로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운명이라고 일반화하고 전체화하는 일종의 폭력”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의 연구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은 (종거나 나쁘거나) 필사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제화에 따르거나 우연한 계기로) 선택하였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말이다. 이 연구에서 이 폭력을 어떻게 다룰지, 실은 함부로 계획하지 못했다. 개인의 괴로운 사건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는 순간도 있고, (그 개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딱하니 알아챌 법한 ‘익숙한’ 구절들이 연구 속에 배치되기 쉽다. 그렇기에 ‘문제 대상’으로 설정하는 일에 대해 몇 번이고 조심해야 한다. 이 같은 기초적인 연구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적 특성을 찾기보다는 연구대상의 삶을 더 두텁게 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데 집중할 것이다.

9) 기존 생애사 연구에서 진행되는 집단의 문제화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최근 이뤄진 노인의 생애사 연구를 살펴보자. 무엇보다 여성독거노인의 증가추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안기덕, 2012), ‘여성독거노인’(박미정, 2014; 고보선, 2014)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일자리 정책에서, 남성 임금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경비원의 직업활동에 대한 연구(전기복·이현식, 2014)가 진행된 바 있다. 무엇보다 노인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남순현, 2015)인지 묻는 연구도 있다. 한편, 농촌에 거주하는 ‘주거노인’(김태성·서석남, 2012)의 생애사를 통해 노인들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핀다. 또한 특수하다고 여겨진 노인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낯설게 느껴지지만, 오래된 이방인으로 살아온 ‘화교노인의 정체성’(김영숙·이근무·윤재영, 2012)이나 요사

(ethnography)적 방법을 택했다.

실질적인 방법은 이희영(2011)의 제안을 염두에 뒀다. “특정 시점에서 체험된 생애사”로서 “이야기된 생애사의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인데, “사회적 시간 속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사건과 체험이 하나의 특별한 형상을 가지게 되며, 관찰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이희영, 위의 책: 134-135쪽). 이로부터 귀납적인 증명이나 연역적 방식이 아니라, 이 둘 모두를 오가며 구술자가 말한 특정한 사실로부터 과거의 상황을 추론하고, 그 미래를 전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이희영이 “역추론적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인과의 논리에 놓기보다, 행위자의 선택과 결정이 (사후적으로)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연구자의 관심주체에 맞춘 연구가 아니라, 구술자의 구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구술자가 왜 이런 순서로, 이런 구조로 말을 하는지를 질문하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이희영, 위의 책: 138-139쪽)

구술자가 이야기한 생애사를 두고, 생애사적 사실과 연구자의 정보를 기초로 진행했다. 생애사적 관점은 “구술자가 처한 사회정치적 조건, 삶의 조건과 삶의 체험 속에서 형성된 행위지향이자 의미부여의 틀”이라는 해석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구술자의 경험과 해석, 이것과 구분되는 체험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른 사례와의 비교 작업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분명 특수한 사례이다. 그러나 비슷한 유형을 보이는 사례를 확인하여, “다른 개인의 생애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을 통해”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를 통해 한 개인의 사례이며, (흔히 구술사/생애사를 미시적인 특수사례로 간주하는 지적을 극복하고) 개인의 유형화를 통해, 사회구조의 형성과정을 읽을 수 있다.¹⁰⁾

이 늘어나는 '재혼여성노인의 정체성'(석희정, 2013)에 대한 탐색이 이뤄졌다. 노인도박자(이혁구·김진숙·이근무, 2011)에 대한 연구는 요사이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일탈적 행위라고 여겨지는 도박(노름)을 생애사건과 이에 대한 의미구성의 흐름을 밝힌다. 이 같은 생애사 연구들은 특이한 지향을 가진다. 대개는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될 필요를 요청하는 연구라는 점이다.

[표 1-1] 구술 진행표

날짜	조사지 및 구술자	조사유형
2015년 8월 19일	○○복지관 사회복지사 G	면접인터뷰
2016년 5월 10일	△△경로당	조사
2016년 5월 13일	△△경로당	조사
2016년 5월 24일	△△경로당 임원 D(1차)	면접인터뷰
2016년 5월 31일	△△경로당	조사
2016년 6월 16일	○○경로당 임원 C(1차)	면접인터뷰
2016년 6월 18일	○○경로당 여성노인(89세)	면접인터뷰
2016년 7월 12일	△△경로당	조사
2016년 7월 19일	○○경로당 C(2차)	면접인터뷰
2016년 8월 4일	○○경로당 임원 A (1차)	면접인터뷰
2016년 8월 5일	△△경로당 임원 D(2차)	면접인터뷰
2016년 8월 9일	○○경로당 임원 A (2차)	면접인터뷰
2016년 8월 17일	○○경로당 임원 A (3차)	면접인터뷰
2016년 9월 2일	○○경로당 임원 A (4차)	면접인터뷰
2016년 9월 6일	○○경로당 B (1차)	면접인터뷰
2016년 9월 12일	○○경로당 B (2차)	면접인터뷰
2016년 10월 26일	△△복지관 사회복지사	면접인터뷰
2016년 10월 27일	△△복지관 생활관리사	면접인터뷰
2016년 10월 27일	○○경로당 임원 A (5차)	면접인터뷰

연구자는 A를 주된 구술자로 삼았다. 경로당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같은 경로당의 C와 친분이 있는 D의 구술을 확인했고, 경로당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근처 경로당의 임원인 E를 만났다. 또한 같은 지역 내의 사회복지사와 생활 관리사와의 면접을 진행했다.¹¹⁾ 위의 표와 같이 진행했다.

10) 방법론에서는 이희영(2011: 133-144쪽)이 제시한 원칙을 좇는다. 이희영은 “서사적 인터뷰와 생애사 구성의 자율성 - 일상세계의 구성물인 생애사 텍스트의 특성 - 이야기된 생애사의 재구성 - 체험된 생애사의 재구성 - 사례의 유형화”를 구술생애사 연구의 원칙으로 제출했다.

11) 이 연구에서 서술할 때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다. A의 구술은 별다른 출처를 표기하지 않고 큰따옴표(“”)로 처리했고, 다른 사람들의 구술과 다른 문헌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시하거나 각주 처리하여 큰따옴표(“”)로

이야기된 구술사에서 도시에 사는 노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원을 조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대로, 경로당에 진입했고, 노인 A를 만났다. A는 무척 활발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임원직을 맡고 있기도 했다. 연구자는 중산층에 해당하는 노인이라고 속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년기에 경험하기 쉬운 경제, 건강, 사회의 3고(苦)에다, 환경을 추가하여, 여섯 가지 요인¹²⁾을 기준으로 할 때, A 역시 복합적 결핍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연구대상인 A는 위의 차원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소득 -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벌고 있음.

노동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폐지수집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건강 - 큰 기능장애는 없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임.

*대인관계 - 배우자가 있지만 불만족한 상태이며, 자녀와의 관계는 유지되지
만 다소 거리가 있음. 대인관계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사회참여 - 인근 복지관의 여가문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경로당을 중
심으로 사회활동에 임원을 맡을 정도로 활발함.*

주거 - 전세로 얻은 한옥에 혼자 거주하지만, 집의 편리성은 낮은 편임.

김경혜(2014: 11쪽)는 군집분석을 통해 서울노인의 결핍상황을 다음 네 가지의 집단으로 유형화한 바가 있다: (1) 모든 차원에서 결핍 정도가 심하지 않음 (41.7%), (2) 건강/사회참여의 높은 결핍(32.4%), (3) 건강/사회참여/주거결핍 (10.1%), (4) 소득/건강/사회참여/주거가 높은 결핍(15.7%)이 그것이다. 그리고

처리했다. 작은 따옴표는 연구자의 강조이며, 굵은 글씨체로 처리한 부분은 문헌과 같이 기록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했다. 구술 내용에 소괄호란 빠진 조사나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 대괄호란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구술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¹²⁾ 소득(소득수준), 노동(노동접근성, 노동만족도), 건강(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기능장애), 대인관계(부부관계, 자녀관계, 친지관계), 사회참여(여가문화활동, 사회활동, 평생교육), 주거(주거적정성, 주거편리성, 주거안정성)로 나뉜다.

서울노인의 56.8%가 복합적 결핍을 겪고 있다고 밝힌다. A는 앞의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술과 관찰을 통해 A는 소득, 노동, 대인관계, 주거에 일정 정도 이상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행히도 나이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으며, 활발히 사회참여를 하는 보기 드문 유형이기도 하다.



02

‘되풀이 인생’, 끝나지 않는 ‘노력’

- 1_A를 만나다
- 2_어린 시절과 한국전쟁 경험
- 3_인천의 ‘A 순경’
- 4_서울살이와 ‘장사끼’
- 5_돌아온 남편과 자녀 교육
- 6_부모이자 노인인 그녀

02 | ‘되풀이 인생’, 끝나지 않는 ‘노력’

1_A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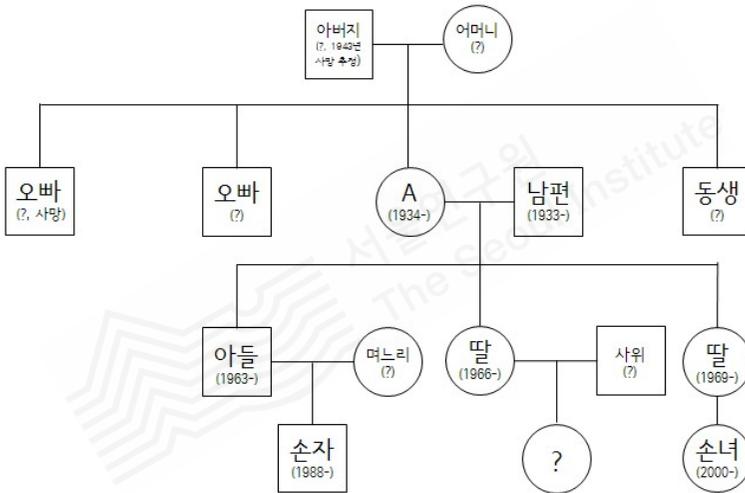
A(1934년생)의 생애사를 정리하기 전에, 어떻게 A를 만났는지 그 장면을 잠시 옮길까 한다. A(1934년생, 83세)를 처음 만난 것은 2016년 6월 16일이었다. 민속지 작성을 위해 북아현동 경로당들을 무작정 찾아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찰할 무렵이었다.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경로당에서 A를 만났다. A는 경로당 임원으로 ○○경로당에 처음 찾아간 나를 맞이했고 내 질문에 대해 수려한 말솜씨로 대답해줬다. 당시만 해도 사전조사의 개념이 강했는데, 한 명에게 집중하기보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기 때문에 따로 연락처를 받거나 인터뷰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필드노트에 경로당에 임원이라는 사실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만 기록해뒀다.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A를 다시 만났다. 그때 연구자는 근방의 경로당을 헤집고 다니며, 인터뷰해줄 분을 물색하던 때였다. 마침 그날은 C(경로당 회장)를 만나 연구의 배경과 사정을 설명하며, 마땅한 어르신을 소개해줄 것을 부탁했고 인터뷰를 해줄 사람들을 소개받은 날이었다. 하지만 소개받은 어르신들에게 거절당했고 연구자는 막막한 상황에 처했다며 다소 멍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랐다. 그때 C가 같은 임원인 A를 불러줬고 “뭐하는 거요”라며 구술자 A가 나타났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수집한다”는 어설픈 소개에, “그럼 내가 해줘?”라며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A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노인이 다 이렇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 대표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다. 유별난 사람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녀가 살아낸 서울생활 속에는 비루한 현대사의 풍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거대한 격동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한 사람의 현재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게다가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역사에 해당하겠지만,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는 동시대적으로 작동하는 경험이다. 개인적인 서사로 일축하기에는 시대의 면면이 드러나는 이 사회의 서사이다. 짧게나마 정리한다면, 그녀는 피난민이자 잠시나마 순경으로 재직한 공직자였으며, 중동으로 돈 벌러 간 남편 대신 장사를 하며 가게를 꾸린 어머니이고, 50여 년을 서울에서 살아온 시민이다.

2_ 어린 시절과 한국전쟁 경험



[그림 2-1] A의 가계도

A는 1934년 황해도 연백군 연안읍에서 3남 1녀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개성 출신으로 교직에 있다가 A가 9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는 연안 출신으로 동일옥이라는 냉면집을 운영했다. 나이 차가 많았던 큰 오빠는 마산에서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동생 중 한 명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외국에 살고 있고, 또 다른 동생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했다.¹³⁾

특히, A에게 아버지는 다음 일화로 기억된다.

“내 국민학교를 가야 하잖아. ... 근데 비가 오면. 걸어 땀겨, 학교가 멀어 줘. 한 여기서 이십 분 갈 거야, 내 걸음이면, 거기서 학교가, 옆에 가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 그러면 눈이 오나,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아버지, 나 학교 눈이 오고 그래” 그러면 가라 그래야 되잖아? 아버지가 “그냥 가지마” 이래. 딸, 아들 셋에 (딸은) 나 하나니까 가지 말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의 현 처지에 대한 해석이기도 하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 안 했어. 그냥 엉터리로 나왔어. ... 그 머리 갖고 (공부)하면 잘 땀겨를 텐데. 그때 좀 농땡이를 퍼서.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서). 밤낮 생각에, 아유, 나, 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학교 안 땀겨고 컸으면 좋겠다. 인제는 금세 이렇게 늙었어’라며 말이다.

열일곱 살이 된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밤을 틈타 월남했다. A에게 전쟁이란 주로 폭격을 피해 숨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워 거기. 방공호에 있다가 피난 나왔어, 방공호에. 매일 폭격을 해서 못 살아. 그래서 하루 자고 나면 우리 고향은 아주 다 하나 집이 없어. 싸그리 폭격, 이 배에서 함포 사격을 하는데 그때 땅속에 안 들어가면 못 자. 다 폭격을 해서 ... 폭격기가, 썩 썩이 폭격기가, ... 거기(다) 함포를 쏘고, 집이라는 게 없어.” 아무리 전쟁기라 해도 생존하기 위해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 사람이 떠난 집에 들어가 쌀을 가져와 밥을 해먹고, 밤에는 연안역 근처 성당 맞은편 길 아래에 미리 파놓은 방공호에 가서 숨어 잠을 잤다. 방공호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 풀색에 맞추어 해놓았다.

오빠는 마산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는 터라, 동생과 함께 둘이 고향을 떠났다.¹⁴⁾ 피난 경로는 교동도를 지나 강화도를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 피

13) 큰 오빠는 A에게 조력자였지만, 그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생은 큰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기도 한다.

14) 이 부분에서 구술자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탈출했다(2016년 8월 2일 구술)’와 ‘동생과 함께 둘이 탈출했다(2016년 8월 9일 구술)’라는 다른 발언을 한다. 이후의 맥락을 살펴보면, 특히, 경찰학교 진학에 관련한 구술을 참조하면 ‘동생과 함께 둘이 탈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난길에는 '인솔자'가 있었는데, 그는 교동도에서 쌀 두 가마니를 주고 떠났다.¹⁵⁾ 피난 목적지가 인천인 건, 먼저 피난 온 고향동네 사람이 인천에서 경찰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까닭이다.¹⁶⁾ 경찰을 하던 사람은 연안에서 부모가 운영한 냉면집 맞은편에 살던 사람이다.

3_인천의 'A 순경'

한 연구는 20세기 후반, 동제의 참여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이주민들이 기존의 지역공동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네 가지 양상이 있다고 밝혔다. “(1)서울의 타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마을 제의(동제)에 적극적이며, 제의를 주도하기도 한다. (2)개별적으로 월남한 사람들도 지역민의 일원으로 편입하기 위한 시도를 한다. (3)해방촌은 이북 출신 월남인들이 집단 이주하여 기독교를 바탕으로 그/녀들만의 지연·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4) 그런데 멀리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대체로 그/녀들만의 폐쇄적 소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역 제의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인다. 곧 1960~1970년대에 남도에서 이촌향도한 이주민들은 쉽게 선주민과 동화하지 못하면서, 지연과 혈연성을 바탕으로 그/녀들만의 소공동체를 형성한다(정형호, 2011: 309-310쪽).” 이 네 양상을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유형을 만들 수는 있다. (1) 지연과 혈연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의 형성과 이용, (2) (정착한) 마을의 토박이와 선주민(先住民)과의 동화 여부는 이주민에게 중요한 각기 중요한 축이다.

15) 한국전쟁 전까지 황해도 연백과 교동도 사이에 오일장과 품팔이를 하러 오가는 데 쓰는 나룻배가 있었다. 그리고 거리가 짧은 편이라 수영을 잘하면 헤엄으로도 오갈 수 있었다. 군사경계선이 확정되고 난후에도 일부의 사람들이 연백과 교동도 사이를 오갔다고도 한다. A는 이 루트를 이용해 피난 온 것으로 추정된다(오창현·이성곤, 2012: 22-23쪽).

16) 한국전쟁 이전, 큰아버지가 살던 인천과 작은아버지가 살던 서울을 오간 기억이 있다. 그런데 큰아버지를 찾아간 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사정은 알 길이 없다.

A는 초기에 (이북에서의) 지연(地緣)공동체가 형성된 인천의 송림동에 거처를 잡았다.¹⁷⁾ 이 공동체는 A의 정착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첫째, 취업(과 진학)이 가능했고, 둘째, 신원 보증이 이루어졌다.

A가 송림동에 정착을 시도한 시기는 대략 10대 후반이었다. 월남 전, 노동경험이 없었고, 구직에 쉬운 기술도 가지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즉, 구직을 하려면 진입을 위해 공적인 시험을 보거나 기술교육 등이 필요했다.

여기에서 지연 공동체는 그녀에게 시험-취업의 기회를 공유했다. 설명하자면, 고향동네 사람을 찾아가 “어떻게 해요, 우리 둘이 피난 나왔는데. 우리 둘[A와 동생]이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나?”라고 말한다. 그는 “못 들어간다”고 말하며 A에게 경찰이 되길 권했다. A(의 의도가 어떠한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녀는 (월남민들이 형성한) 공동체의 도움을 이용했다. 이렇게 경찰전문학교 입학시험을 봤고, 부평에 위치한 경찰전문학교에 입학했다.¹⁸⁾ 경기도경찰청의 하인천지역¹⁹⁾ 통신과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원활한 것은 아니었다. 중학교 졸업 여부가 문제였다. 당시 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했다: 경찰관지원서 1통(서식 제1호), 이력서 2통(서식 제2호), 신원보증서 2통(서식 제3호), 건강진단서 1통, 호적등본 또는 기유등본 1통, 사진 2장(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명함형)이 그것이다.²⁰⁾ A는 열일곱 나이에 피난을 나와,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²¹⁾ 졸업증

17) 인천은 송림동과 용현동에 피난민이 많이 살았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남동구 소래포구 역시 피난 온 사람들이 새우잡이를 하면서 형성한 측면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18) 경찰전문학교 규정을 살펴볼 것.
출처: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A0%84%EB%AC%B8%ED%95%99%EA%B5%90%EA%B7%9C%EC%A0%95/\(00057,19570808\)](http://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C%A0%84%EB%AC%B8%ED%95%99%EA%B5%90%EA%B7%9C%EC%A0%95/(00057,19570808))

19) 하인천은 지금의 인천역과 인천항 사이 부근을 말한다. 신평지역 근처의 상인천, 바다리 근처의 동인천이 있었다.

20) 순경임용규정(1953년 10월 28일) 참조
출처: <http://www.law.go.kr/lsc.do?menuId=0&p1=&subMenu=2&nwYn=1§ion=&tabNo=&query=%EC%88%9C%EA%B2%BD&x=0&y=0#AJAX>

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력서의 서식에는 각 학교의 졸업 여부와 학교장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원보증이 필요했다. A는 인천으로 피난 온 자신의 학교 교장을 찾아가 “내가 경찰을 해야 하는데 졸업 맡은 걸로 해주십시오.” “이북에는 도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해주십시오”라며 서명을 받아냈다. 즉, 같은 지역에 자리 잡은 (지연공동체의) 어른에 의해 신원을 보증할 수 있었다.

그녀는 순경으로 채용되어, 통신과에서 근무했다. 일에 대한 평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A 순경이라 불리던 그녀는 여성으로 남성들이 하기 힘든 일을 맡아했다. 정비석의 『자유부인』(1954)이 나온 시기로 보인다. 저녁시간에 사복차림으로 (남성 경찰들 대신) 댄스홀에 갔다. “시장이방들 들고 와갖고” “말기고선 들어가서 춤 배우”는 여성들 가운데 그녀들의 “건수”가 될 만한 여성들이나 “싸움나면 들어가서 잡이”왔다.

A는 그녀들에 대한 견지, 자신에 대한 견지 알 수 없는 말투로 ‘되풀이 인생’이라고 말한다. 이후로도 자신의 ‘신원을 (끊임없이) 보증’하고, (취업과정이 필요없는 장사를 통해)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4_서울살이와 ‘장사끼’

그러나 경찰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 스물일곱이 된 1960년에 결혼을 하며, 경찰을 그만뒀다.²²⁾ 당시로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셈인데, “엄마가 ... 혼자 생활하는데 시집이 문제가 아니”었다. 고향동네 아줌마가 증매를 썼고, 당시 춘천

21) 해방공간의 미군정기 교육제도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6년(혹은 3년), 대학교 4년(혹은 3년)의 6·6·4제 혹은 6·3·3제를 병행하고 있었다.

22)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몇 년 동안이나 경찰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 알 수는 없다.

시청 소속으로 공무원을 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다. 동시에 남편이 사는 춘천으로 이주해갔다. 남편은 1933년생으로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다.²³⁾ A와 남편은 세 명의 자녀를 뒀다. 아들은 1963년생, 딸 하나는 1966년생, 또 다른 딸은 1969년생으로 모두 삼년 터울이다. 1969년에 딸이 태어나자,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중동으로 떠났다. 친구가 “꼬시는 바람에 직장을 관두고선 쿠웨이트”에 갔다. 남편은 ‘진흥기업’ 소속으로 4톤 트럭 운전사로 생활했고, 쿠웨이트와 콰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A는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서울로 이주해왔다.²⁴⁾ 그녀는 우선 고모할머니를 찾아갔다.²⁵⁾ 당시 고모할머니는 신암촌에서 물건을 떼다 양색시춘 여성들에게 팔고 있었다. 찾아가서는 “나 서울 왔는데 살 수가 없어”라며 도움을 요청했는데, 고모는 “야, 너 같은 걸 누가, 지금 너 빈털터리잖아!”라 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자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공덕에 사는 “잘살았”던 작은 엄마를 만나, 작은 엄마가 참여한 계에 끼워주라고 부탁했다. “작은 엄마, 나 한 번만 봐줘. 나 거기 계(에) 들어(보)내줘. 그리고 나 한 번(만) 외상(을) 얻어줘.”라고. 그러나 계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우선, “사는 걸 봐야... 돈을 준”다는 계주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더군다나 잘 사는 “작은 엄마와 친해질려면” “그 옆에를 얻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송문고등학교[현재의 대흥동] 옆 산꼭대기(에)다 (방을) 얻었”다. 계주가 보라고 “방을 하나 얻어서 놓을 하나 딜어(들여)놔”다. 계주가 집에 들렀고, 그후에 돈을 얻었고, 이렇게 장사를 시작했다.²⁶⁾

23) 현재는 육이오참전용사 마포구 지회장으로 활동한다.

24) 아들이 국민학교에 진학하기 전으로 추정된다.

25)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 가운데,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어린 시절, 당시 연안지역에서 수리조합장의 딸과 친구였다. “뺨이 큰 사람”인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든든”했다는 짧은 소회다. 월남 이후 경찰관과 교장 선생님의 일화, 고모할머니, 작은 엄마 등과의 관계는 후원자처럼 A가 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었다.

장사 초기에는 고모할머니를 따라 다니면서 고객을 늘린 걸로 보인다. 앞서 말한 대로 양색시춘을 대상으로 하는 “신양촌 (고모) 할머니 때문에 거길 들어갔다”다.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있다. 같은 양색시춘에서 장사를 하는데다, 초기에 거래처를 알선해 준 고모할머니와 경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신양촌은 그거[그제] 장사쌈(장삿속)인 게 무섭고, (고모할머니가) 그거[고모할머니가 파는 물품을 파는 일을] 허란 말은 절대 안”하기에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다. 여기에서 A의 재기 어린 관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양색시춘에 가니 “낮에도 손님을 받더라고. 그런데 개들이 외국물건만” 쓰는 모습을 보며, 무얼 팔지를 정했다. 필요에 따라 미제 물건을 주로 사왔고, 특히 화장품을 사기 위해 기차를 타고 인천에 갔다. 다만, 고모할머니처럼 신양촌에서 물건을 떼다 팔 수는 없었다. 고모할머니가 팔지 않는 물건을 골라야 했다. 그래서 “라디오(라디오)… 미제화장품”을 주로 사왔다. 그녀들의 “국산 잘 안” 쓰기에 인천에 가서 “미제물건, 화장품. 하여튼 개네들이 원하는 건 … 다 갔다” 줬다.



[그림 2-2] 새마을부녀회 사진

출처: “○○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60주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2hE83J2apSQ>

26) 서호철(2010)에 따르면 1960년대 유행한 계(번호계, 일수계, 낙찰계, 하와이계) 등이 전통적인 계가 아니라고 밝힌다. “계를 끼고 소수의 계원끼리 저축과 대부를 교환”하며, 각자 목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또 계주외에 특별히 임원이 없고 계는 전적으로 계주와 개별 계원의 관계로 맺어진다고 밝힌다. 또한 이 윤희제 상호금융에 가까운 계들은 도시 소자영업자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한다. A가 어떤 형태의 계에 참여했는지 알 수는 없다.

A는 양색시촌을 오가다가, 아들이 추계국민학교에 다니는 시기(1970~1975년 사이)에 시민아파트²⁷⁾로 이사하고 나서, “내가 사람을 알아야 무슨 장사를 뚝도 하잖아. 그니까 이제 봉사를 해야겠다. 해갓구” 새마을부녀회에 들어갔다. 그녀의 눈썰미는 사람들의 관계와 흐름을 읽는 데 탁월하다. 새마을부녀회에 대해 알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이 시청에서 일을 할 때의 경험 덕분이었다. “우리 영감이 춘천에서, 그 시청에서 뭘 하면은 날 시켜. 나와서 이렇게 뭘 좀 읽으래. 그럼 내가 그 나가서 읽고, 그런 걸 내가 조금 눈을 봤지. ‘아, 이게 뭘 하면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여기 와서 그걸(새마을부녀회) 들어간 거야. 그때 그 계기로 삼아서 들어갔어.” “아파트가 그때 이십 몇 동까지 있었”는데, 16동 아파트 한 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총무와 회장까지 맡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장사하기가” 수월했고, “부녀회”를 통해 “그럼 뭐 팔라 이러면 잘 팔았지.”

총무를 맡던 때의 기억이다. “부녀회에, 기금을 만들었어. 인제 회원들하고 이제 단합대회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또 통에, 동에도 ... 이렇게 노인잔치를 해줘. ... 각 동 노인정에 가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내가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 노인정에 가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했으니까. 기금이 있잖아? 그걸 갖고 또 다 해줬어.” 게다가 새마을부녀회 소속인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다.

또한 국제승공연맹의 서대문구 지부에 가입해서 회장직까지 맡았다. 국제승공연맹의 지원으로 미국에 다녀온 적도 있다.²⁸⁾ 국제승공연맹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고향인 이북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 북한에 대한 짧은 평을 한다. 이북이

27) 시민아파트는 1969년 완성되었는데 차례로 지어진 금화시민아파트 18개 동, 금화시범아파트 1동, 2동은 1996년 ‘천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1년 모두 사라졌고 남아있던 시범아파트 3동, 4동은 2015년에 철거되었다. 금화시범아파트에 대해서는 “김성훈, 2013, “국내 일간신문으로 살펴본 금화지구 아파트 생애변화에 관한연구”, 『계획계』, 제29권 제5호, pp.99-106”로 살펴볼 수 있다.

28) 이백여 명이 갔다고 말하였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아직 찾을 수 없다.

좋다는 말이 있다지만, “가서 볼 때는 말도 못 하고, 무섭잖아. ... 아바이 엄마 동무하는데 거기 아냐. 서로들 감사하는 데가 거기 아냐. ... 그게 싫어서 나왔지.”



[그림 2-3] 1969년 5월 9일 북아현 시민아파트 조감도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그러나 시민아파트 생활은 그리 길지 않았다.²⁹⁾ (아마도 1976년으로 추정되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자, 삼익아파트[현재의 아현역 1번 출구 뒤편 앞으로 내려왔다. 이전에 살던 시민아파트는 “거기서 딸들을 키우면 밤에 다니기가 학교(에) 다니기가” 안전하지 않아 “길 있는데(를) 샀”다. 여기에는 단순히 딸들의 안전 문제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건설이 중단되거나 점진적으로 철거를 계획 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아파트에서의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그녀는 시민아파트에 살면서, 부동산 중개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요거 조금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해달라. 그렇게 하면 하나 샀다가 팔면 팔백(만 원)씩 남을 때도” 있었다. 당시에 장사

²⁹⁾ 여기에서 다소 헛갈리는 게 있다. 현재의 (북성초등학교 옆) 두산아파트 자리에 있던 시민아파트에 살았다고 하지만, 시민아파트의 위치는 현재의 천연동 근처다.

를 하며 “아파트 두 개를 샀”다. 그러나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파트 두 채를 각각 칠백만 원 정도에 팔아서 총 천사백만 원을 받았다. 여기에서 장사를 하며 저축한 돈 천만 원을 더해 (평당) 백만 원씩으로 이천사백만 원 짜리 스물네평 한옥을 사서 꽤 오랫동안 살았다. 한옥에서의 생활은 좋은 집이 아니지만, “고등학교 땀길 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밤에 다니기 좋은데” 있는 집이었다.

그러나 돌아켜보면, 함께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의 제안을 뿌리친 걸 아쉬워한다. “밭이 넓으니까 나하고 부동산, 난 그때 부동산 자격증, 금세 줬어. 근데 난 그걸 시시하게 생각했어. 인제 그거 했으면 나 돈 많이 벌었어. 그걸 시시하게 생각(하고) 안했어. 부녀회 그쪽에서, 활동만 했어. 괜히. 그래서 그거 하나 실패야.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운이, 운도 따라야 돼. 억지로 안돼” 라고.

5_돌아온 남편과 자녀 교육

남편이 10년 만에 집에 돌아왔다. 돌아와 한 집의 개인기사로 생활했다. 이즈음부터 다른 상품을 팔았다. 물론 “조금씩 부탁하면 그걸 하는 게 있으니까 갖다 주는 건 있지”만, (현재) “나 사는 집에 할머니”가 옷 장사하는 걸 보고 품목을 바꿨다. 그녀가 본 풍경을 살펴보자.

“그 안에서 했는데 그 할머니는 화투를 쳤어. 그 집이, 그 자리가 화투를, 그 할매가 살더라고. 그 집 안에다가 옷을, 인제 싸구려를 저기 청계천 가서 물건을 떼와, 싼 걸. 방 안에다 진열을 해놔. 그러면 거 화투꾼들이 사. 화투를 어떻게 하나. 백 원짜리 치는데, 뛰어, 백 원씩 뛰는데. 세 패야. 마루(에) 두 패, 방에 한 패. 그렇게 하는데 뛰는 거로 밥(을) 해줘, 저녁에. 그러면 나도 거기서 그런 거 보면 (말)하지, 내가. 살짝. 내가 입고 가서, 따는 때(에)는 사람이 ‘어머 그거 좋아요?’(라 말하면) ‘내가 사다 줄게’(라고.) 장사끼가 있으니까 한다고.” “얼마에

사다 줄게. 그 할머니한테 잘 못 댄지. ... 어디서 떴어나 하고 (물어보면) 청계천 가서, 평화시장(에) 가서 떴 온다 그래. 그럼 이제 거긴 싸. 그리곤 사람들이 가기 싫어했잖아.”

따로 가게를 열지는 않았지만, “인천도 댕긴 사람이 까짓 거 못 가?”라며,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서 살았”다. “발품”을 팔며, 돈이 아까워 “택시라는 건 안 타”고, “늘어잖아(눅잖아)”라며 “버스도 안 타”며 ‘발품’을 팔아 살았다.

자녀들이 “졸업을 마치고 나니까 직장을” 간 이후부터 장사를 “조금씩 했”다. 아들은 서울대 약대를 나온 동생의 소개로 모 회사의 판매영업직으로 일했다. 큰딸은 승무원이 되었고, 막내딸은 피아노교습 강사로 돈을 벌었다. 자녀들이 용돈을 “조금씩 주니까” 이전처럼 “그렇게 (장사를) 안 해도 되겠더라고.”

장사를 하며 번 돈은 자녀들의 교육에 사용했다. 교육은 아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이지만, 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쏟았다. 우선, 아들의 교육은 A에게 하나의 “작전”과 같았다. 우선, 대흥동에 처음 이사 오자마자 당시로서는 드문 경우로, 유치원에 보냈다. 다만 “돈이 덜 들게 하느라고”,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보냈다. 장사를 하다, 북이현2동(현재의 북이현동)의 시범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아들을 추계국민학교에 “넣었”다. 마산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큰 오빠는 A에게 조언을 했다. “너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한테 잘 보여서. 잘하면 반장을 시키면 개(아들)가 저절로 공부를 한”다는 지침과 믿음이 강하다. 한 번은 “내가 장사를 했”으니, 선생님을 “오시라 그래서” 작은 엄마가 연 금방(금은방)에서 “외상으로 갖다가” “마누라(의) 반지(를) 하나 해”줄 정도로 열성적인 작전이었다. 게다가 아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가텐(커튼)을 전부, 이제 가텐(커튼)을” 새로 맞춰줬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 아이(아들)를 잘 봐주더라고. 그랬더니 점수가 올라가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나 “공부를 안 해서” 전문대에 입학했다.

큰딸은 인천에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했고 항공승무원으로 생활하다 결혼했으며, 작은 딸은 “무용학원 시켰지, 피아노도 가르쳤지, 돈 들여서” “성악하고 피아

노”를 배우러 경기도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갔다가 “중간에 관뒀다.” 자녀들에 대해, 큰아들과 막내딸에게 연민을 가진다. “같은 인하대학 출신을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이 아들하고 딸은 막내하고 아들하고는 똑같이 해냈고, 뭐든지 되는 일이 없어. 여태까지도 그래. 그러고 살어. 에휴.”

그러나 그녀는 무슨 이유에선지 둘째인 큰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저 승무원생활을 하고, 같은 대학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말 외에는 꺼내질 않는다.

6_부모이자 노인인 그녀

자녀가 결혼을 하고 분가한 이후, 한 번의 문제가 생긴다. 스물네 평짜리 한옥을 팔아 받은 돈이 “아들 주고, 딸 주고. 그때 저기 아들하고 노나 놓고, 노나 살다가 다 없어졌”다. 이렇게 스물네 평짜리 한옥을 일억 삼천만 원에 팔아 아들에게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주고, 자신이 나머지를 가졌다. 이후에 열한 평짜리 집을 샀다. 방이 세 개인 한옥이었고, 평당 육백만 원대, 그러니 육천만 원에서 칠천만 원가량의 돈을 썼다. 그러나 아들에게만 집을 준 상황이라, 이 집을 자신이 계속 소유하지 않고, 큰딸에게 한 평에 천만 원을 쳐서 일억 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집의 소유문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재개발 공사 지역으로 포함되었는지, “헐었다.” 소유문제는 알 수 없지만, 딸은 마포구 망원동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이때부터 그녀는 며느리가 마련한 칠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으로 얻은 작은 한옥에서 혼자 살고 있다.³⁰⁾ 현재 사회복지정책의 논리, 특히 “부양의무제”의 논리로 본다면, 아들과 딸에게 준 자산 역시 그녀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이익금과 양도한 돈이 부양의 의무를 성립

30) 남편은 작은딸과 함께 살고 있다. 별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생활에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³¹⁾ 어느새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고, 혼자 떨어져 나온 집에서 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경로당에 나왔는데, 이즈음부터 작은 가방을 메고 골목에서 쓸만한 재활용품을 주워다 직접 쓰거나 팔았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장사를 한다. 장사끼는 하나의 끝나지 않는 노력이 만든 ‘끼’다. “요 앞에 야채장사”로부터 정가에 비해 싼값에 물건을 받아다가, 노인정 사람들에게 야채장수가 정한 정가로 판다. 그리고 남은 차액을, 심부름값으로 혹은 봉사비로 받는다. 노인정 노인들에게 “속임수가 없는”, 중간마진을 하나의 벌이로 삼는다.

월남민이었던 그녀는 어느새 억척스러운 장사꾼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사꾼의 삶은 ‘되풀이’되고 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든다. 그녀의 이 노력은 언제 끝날까? 그녀의 삶은 “운명을 - 어느 노인의 독백”이란 조병화의 시의 화자 같다.

나는 평생을 한시도 빠짐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응시하면서

타고 나온 스스로의 운명을 운명으로
살지 않고, 부지런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타고 나온 그 운명을 새로 만들면서
그 만들어진 새로운 운명을
쉬지 않고 살아 왔어라

슬픔도 기쁨도.

이 시가 무색해지는 지금에도, 그녀는 여전히 ‘끝나지 않는 노력’ 중이다.

31)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충실히 설명하겠다.

03

돈과 먹을거리가 흐르는 경로

- 1_A의 생활과 노하우
- 2_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원조달
- 3_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조달
- 4_경로당 활동과 자원조달
- 5_사적 자원을 통한 자원조달과 공유

03 | 돈과 먹을거리가 흐르는 경로

1_A의 생활과 노하우

“서울 곳곳에서 만난 독거노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현재의 삶은 비슷했다. 자식이 있지만 부양하지도. 그렇다고 왕래하지도 않았고. 그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보호되지도 않았다. 노령연금과 폐지 수집 등을 통해 얼마간의 돈이 생기지만, 방세와 병원비, 약값 대기도 버겁다.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먹는 것도 부실하다. 나 못가지처럼 아픈 몸에는 크고 작은 병들을 마른 잎처럼 매달고 산다. 노인들은 작은 TV를 벗 삼아 몸 하나 겨우 널 공간에서 이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살아 내고 있었다(강운중, 2015: 251-253쪽)

위의 인용문은 독거노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서술이다. 소득, 노동, 대인관계, 건강, 사회참여, 주거라는 여섯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핍된 상황이다. 가장 문제적인 집단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핍된 요인을 확인하기보다, 결핍된 자원을 획득하는 노인의 생활과 노하우에 주목하려고 한다. 노인들은 몸의 나이 들을 고스란히 체험한다. 이들에게 노화 역시 하나의 실질적인 문제로, 물질적인 실체이며, 나이 든 몸과 삶의 노하우는 다양한 실천을 촉발하는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때문이다.³²⁾

32) 김희경, 2014: 143쪽 참조.

1) 하루 생활

우선 A의 하루 생활을 살펴보자. 각각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절에서 풀어내고자 한다. 다만, 모든 하루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대략적인 하루 생활을 그려 볼 것이다.

기상(5~6시) - 아침식사 - 근로사업 - 경로당 - 점심식사/경로당 내부 혹은 바깥 - 경로당 문닫기 - 저녁 식사 - 채소트럭 알바 - 취침
 * 이동경로 내에서 폐지수집 혹은 심부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보통 “여섯 시나 다섯 시에 일어”난다.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대강 한다. 그리고 “폐품 같은”게 “혹시 뭐 있나 하고” 집에서 300~400미터 가량 되는 “경남아파트”나 그 위 공원까지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일곱 시까지 공공근로를 하는 주차장으로 나간다.³³⁾

주차장에서 청소를 하고, 주울 거리가 있을 때에는 줍는다. 일이 끝나면 경로당에서 함께 먹을 점심용 먹을거리를 사러 마트에 간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이동한다. 경로당에 도착하는 시간은 10~11시 내외로 보인다.

점심은 경로당에서 먹는다. 그러나 가끔 수요일 점심에는 A교회에, 금요일 점심에는 (자연사박물관 근처에 있는) B교회에서 열리는 경로대학에 들렀다가 쌀을 타온다. A교회에서는 열 시쯤에 도착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설교를 들은 후에 쌀을 받고 점심을 먹고 나온다. B교회에 갈 땐, “아홉 시에서 열두 시”사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점심을 먹은 후의 생활은 매일 매일 다르긴 하다. 사적인 일정을 소화할 때도 있고, 사회복지관이나 지역 내 노인복지기관에서 “교육(을) 갈 때도” 있다. 혹은 동사무소에서 열리는 문화교육을 수강할 때도 있다.

33)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한 달에 열 번 정도를 한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경로당에서 남는 시간을 보낸다면, 다른 노인들과 고스톱을 치며 오후를 보낸다. 고스톱의 규칙은 인상적이다. 따는 돈이 없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경로당에서 오후를 보내는 날이면, 할머니들을 집에 보내고 여섯 시쯤 경로당 문을 닫는다.

저녁 식사는 때에 따라 다르다. 경로당에서 점심밥이 남은 경우에는 저녁을 먹기도 한다. 가끔 누군가가 사준대면 외식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저녁 시간에 “할머니들 뗏이 만나서 거기(중앙여자고등학교 운동장) 한 열 바퀴씩 돌”기도 했지만, 요즘은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년 전부터, 야채장수가 오는 날이면 야채장수 트럭 옆에서 일을 돕는다. 출근 시간은 18시다. 야채장수와 일을 하는 날에는 아홉 시나 열 시에 집에 들어간다. 굳이 다른 일정이 없다면, 그 시간에 “그냥 텔레비전 보는”게 일이다. 한 달에 몇 번씩 자녀 혹은 손자녀를 만나기도 하는데, 저녁을 함께 먹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잠을 청한다.

A는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폐지나 재활용품을 줍는다. 주운 폐지나 재활용품은 집이나 경로당에 가져다 놓는다. 한참을 모아 근처 재개발 공사지역 내에 있는 중간업자 역할을 하는 나까마나,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다 모아놓은 것을 판다. 경로당이 문을 닫는 주말의 경우, 토요일에 가끔 복지관에서 경로당과 함께 열리는 노래교실에 놀러가기도 한다.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서 “열한 시 예배(를) 보고, 열두 시에” “점심(까지) 먹고” 나온다.

2) A의 씬씀이

현재, A가 조달하고, 교환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표를 감안하면, 기본적인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생활비를 추산할 수도 있다. 최저생계비가 61만 7천 원이라는 것을 우선 밝힌다.

[표 3-1] A가 조달하는 자원과 조달/교환/이용

자원 종류	분류	사회 보장	조달 (○상시, △가끔)					→ 교환(개인) ←		자원 이용		
			정부 공기관	복지 기관	종교 시설	기타	*무상 취득	소득	매입	개인	공유	
경제 자원	기초연금	○								○		
	보험료 및 공과금	○ (감면)		△							○	
	노동 소득	노인 일자리사업	○		○	○			○		○	
		*재활 용품판매						○	○		○	○
		**야채 판매알바							○		○	○
생 필품 (자원)	의복	의류					○		○ 시장		○	○
		신발					○				○	○
	식품	쌀		△	△	△					○	○
		야채						○**	○		○	○
		장류		△	△	△						
		반찬			○							○
		커피		△	△					○*		○
	화장품			○ 자가 생산							○	○

A는 남편과 함께 각각 기초연금을 16만 원 정도를 받는다. 그러나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홀로 쓰는 모양이다. 여기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며 20만 원을 번다. 즉, 한 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을

통해 얻는 임금이다. 그러나 1년 가운데 9개월만 일하는 사업에 지원했기에, 3개월은 기초연금으로 지내야 한다. 그렇다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통 겨울에 노인일자리사업이 휴지기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 난방비 지원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확실치는 않지만, 매달 16~36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가뭇돈도 있다. 용돈이나 여기저기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외를 돌아다닐 때 폐지나 재활용품을 주워다 집 마당에 쌓아놓는다. 파는 시기가 일정치는 않는데, 간헐적으로 팔아 받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2~3만 원 정도라고 한다.³⁴⁾ 계다가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야채파는 트럭이 오는 날에는 야채 장수를 도와 약간의 돈 혹은(그리고) 남은 야채를 무상으로 구하기도 한다. 벌어들이는 돈은 이처럼 제한적이며, 부동산을 비롯한 고정자산은 전세살이하는 집 외에는 없다.

고정적으로 내는 돈은 다음과 같다. 휴대전화 요금으로 한 달에 “구천육백칠십원” 정도의 비용을 낸다. 전화를 걸 때에는 노인정의 전화기를 자주 이용한다. 주로 노인정 행사를 위해 가는 전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여자 경로당에 전화기가 있긴 하지만, 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화걸기가 가능한 남자방의 전화기와 달리, 여자 경로당의 전화기는 전화받기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야 하는 공과금은 첫째, 건강보험료 지출이다. 대략 만 삼천 원 정도를 내고 있다. (할인 여부) 별거 중인데, 주민등록 역시 따로 했는지 “내가 혼자” 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다행히 건강에 문제가 없어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비는 없다. 그러나 “다리(가) 아파서 조금 주사(를)” 맞고는 있다.³⁵⁾

대중교통비는 거의 들지 않는다. A는 걸어서 이동하기 힘든 거리는 무료로 승차

34)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적어도 몇 개월에 한 번꼴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판매자, 흔히 생계형이라 불리는 경우는 아니다.

35) 그러나 정확한 비용과 어느 만큼의 기간에 맞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가 가능한 지하철을 택한다. “지하철 노선(이) 없는 데만 할 수 없이 타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버스는 곧잘 이용하지 않는다.³⁶⁾

주로 식사와 난방비와 관계를 갖는 가스비는 구술 당시 0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인터뷰에서 “천백 원” 정도를 낸다. 전기요금은 “요새(2016년 여름), 여기 전기요금, 텔레비전 안 보니까 삼천 원”이다. 보고 싶은 TV는 “여기(경로당)서 노상 보”고 집으로 간다. 대신 “냉장고 하나 쓰니까” “기초만[기본적인 비용만] 나갈 거”라 말한다. 다만, 친목회같이 기존에 자신이 활동하던 사회참여는 그만둔 상태다. 경조사비를 내는 게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A는 “거짓말해서 남의 돈(을) 꾸기도 싫고, 내 양심껏 살아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내가 살기가 힘드니까” “누굴 (돈을) 주지(는) 못”하는 처지이다.

이 외에 여기저기 쓰는 돈을 합치면 “잘하면 오만 원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이라 파악하고 있다.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A는 이 서울 이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척 놀란다. 그녀는 개인적인 사연 탓에 기초생활보장보장제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럼에도 삶에 필요한 최저물품을 상정하고, 각 물품을 구하는 각각의 노하우가 있다. 여기에는 앞서 생애사에서 살펴보았지만, 자원을 연계하는 인물, 기관에 대한 이해와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작동한다.

36) “내가 버스도 안 타. 지하철도 안 타. 그래서 지하철 타면 내가 어디 가면 다들 나 보고 이야기해. 내가 다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아네. 나는 못 버는 사람이 택시 탈 수 없고. 버스비도 구백 원이야. 환승 되는 거나 타야 되는데 그것도 지하철 노선 없는 데만 할 수 없이 타는 거지. 모든 지하철 걸어놓고 그러니까 내가 탈 때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다. 노인네들 달꾸 땡기면 어디에 있다. 거기 가서 세워놓고 거기 타고 땡겨야 되니까. 편안히 데리고 땡겨야 되니까 노인네들은. 그렇게 해서 지하철 타지. 버스도 잘 안 타, 나는”

37) 직접 밝힌 바는 없지만, 수입을 말하는데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한 근거다. 또한 주민센터 직원과의 관계로 유추할 수도 있다. 물론 구술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일부 내용을 숨길 수도 있지만, 주민센터 직원과의 관계를 “경로당 임원”인 나 ‘경로당 담당 공무원’으로 설정하며 반복한다. 몇 차례 질문을 해보았지만, 공무원과의 관계, 주민센터에서의 행정에 대해 따로 밝힌 바 없다.

2_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자원조달

1) 사회보장제도와 지자체

우선 사회보장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³⁸⁾ 즉, (1)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2)빈곤을 해소하며, (3)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부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다음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³⁹⁾ 첫째, 공단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고, 둘째, 지방정부의 행정전달체계(광역-기초-읍면동)를 통한 공공부조가 이뤄지며, 이 체계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된 영역이라 본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세 단계의 혼란이 야기된다. 즉,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1) 설립된 민간(거주)시설의 지원, (2) 공공이 설립한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3) 서비스의 수요자 지원방식과 기존 시설에 이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넷째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체계가 미정

38)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 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39) 남기철, 2016: 5쪽.

립된 상황이 왕왕 발생한다. 이 특징은 제도로서의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현재 제도가 가진 특징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민간과 행정기관의 거버넌스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적이 잘 드러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연구자와 행정기관과 지역 사회의 민간사회조직(혹은 민간사회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공동체적 당위성)을 포괄하는 모델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복지거버넌스’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앞선 특징은 일종의 정책적 로드맵을 위한 분석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거버넌스라는 우회로를 상정해놓았지만, (1960~1970년대, 고프먼이 사회에 제출한 표현을 빌려오면) 사회를 총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우선, 2015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총 656만 9천 명(전체 4,970만 6천 명의 13.2%)이다. 「인구총조사」를 통해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9.3%, 2010년 11.3%(등록센서스 방식으로 11.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380만 6천 명 정도로 276만 3천 명인 남성에 비해 그 수가 많다.⁴⁰⁾ UN의 기준에 따라 총인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에 따라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7% 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14% 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로 나누는데, 「장래인구추계」(2015)에 따르면 고령사회는 2018년에 도달할 것으로 추계한다.

노년부양비와 노령화지수의 증가를 주목해야 한다. 노년부양비란 생산 가능한 인구인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를 뜻하는데, 2000년에는 약 10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65세 고령자를 부양하였으나 2015년 들어 생산가능자 5.5명이 1명의 65세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유소년인구인 0세~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큰 변화가 있다. 2000년엔 유소

40) 2014년에 나온 「생명표」(통계청, 2014)를 보자. 기대여명이란 올해 출생한 0세 유아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와 달리, 현재 60대가 앞으로 얼마나 생존할지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말한다. 이를테면, 현재 80대는 앞으로 9.7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으리라는 말이다. 그러나 남성은 5.9년을 더 살겠지만, 여성은 이보다 긴 7.5년 정도를 살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럼에도 성비는 증가세다. 남성 고령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구총조사」의 성별 고령인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35명이었는데, 2015년엔 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95.1명에 달한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데 그 이유가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 가운데서 경제활동/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가시화된 현상이다.

2015년 「사회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그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서 ‘전반적인 생활여건’은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보장제도’,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말하고 있다. 다시 돌아와, 2007년과 2015년의 응답만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2007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그 이전에 비해 ‘좋아짐’이 19.1%, 별다른 ‘변화 없음’이 52.6%, ‘나빠짐’이 28.3%라고 답했다. 8년이 지난, 2015년엔 이 주관적 의식을 파악하는 조사에서 크게 달라진 결과를 볼 수 있다. ‘좋아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0.3%로 증가했고, ‘나빠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8%로 감소했다.⁴¹⁾

사회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노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보장은 일견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책자로 골목을 걷다 보면, 특히 서울의 경우에 이러한 인식에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기령, 골목과 도로 위를 다니며 재활 용품을 수거해 고물상에 파는 노인(일명 폐지수집 노인)은 최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고령자통계」를 기준으로, 2015년 한국사회에 65세 이상 인구가 약 656만 명이란 점을 같이 염두에 두자. 추산의 사실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노인 빈곤의 정도가 두렵게 느껴진다. 사회보장을 이용해 총체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만나는 사회복지사나 생활관리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대개 노인빈곤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한다. 기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인식과 실제 처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왕왕하게 된다.

41)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16: 4쪽.

65세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경우에 따라서는 60세 이상일 수도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지원의 전모를 살펴보자.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아우른다**. 특히, 사회보험의 확충과 공공부조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즉, 노인들은 소득보장(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의료보장(의료보험, 의료보호),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는데, 2016년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에 의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고령이나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우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둘째, 노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23조⁴²⁾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복지시설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⁴³⁾을 이용할 수 있다. 넷째, 독거 노

42)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로 다른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노인복지법 27조44)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검진을 받고, 치매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⁴⁵⁾

그러나 현재의 노인은 “사회보장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이미 노령기에 접어든 이들이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도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인구집단”⁴⁶⁾이라는 특이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조사」를 다시 살펴보자. 2015년을 기준으로 노인 가운데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조사대상 가운데 46.9%,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조사대상 중 53.1%다. 물론,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다.⁴⁷⁾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지 살펴보자. ‘아직 생각 안 함’이라고 답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노인 가운데 3% 정도며,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 있지만 아직 준비 안한다는 사람이 6.1%다. 자녀에게 의탁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줄어드는 추세이며) 34.6% 정도다. 남은 56.3%는 ‘준비 능력이 없다’는

43) 이 항목은 제23조 2,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그 내용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 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4) 제27조 건강진단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45) 치매관리법 제6조와 제12조 가운데 제12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진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46) 배화숙, 2011: 2쪽.

47)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기타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금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영,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다(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위의 책: 10쪽).

그렇다고 해서 취업이 쉬운 것도 아니다. 「사회조사」(2015)를 통해 “여성취업 장애 요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60세 이상 여성의 53.6%는 자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기 쉽기에, 손자녀 육아를 맡아야 해 취업을 하지 못한다.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 관행(14.1%)”과 “가사부담(9.2%)”도 문제다. 그러나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르겠다”는 답이 11.6%에 달한다는 점이다. “모르겠다”는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우린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의 위험 정도-인프라-재정자립도를 살펴보자. 서울시에서 노인비율이 14.5%(서울시 평균 12%)인데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높고, 독거 비율은 22%(서울시 평균 21.9%)로 열두 번째로 높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52.7%(서울시 평균 49.1%)로 열한 번째로 높다. 이에 비해 노인복지 관련 인프라는 서울시 평균 수준(7.76개)인 8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25.7%로 평균 32.1%에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인프라 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도와 인프라 수가 높은 강서구나 노원구, 위험도는 높으나 인프라 수는 적은 금천구만큼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 내에서 자원(특히, 복지관련 자원)이 순환하는 양상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⁴⁸⁾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서대문구는 아래처럼 유형화를 한 바 있다(송인주, 2015: 29쪽).

- 위험군 노인들이 많고 자치구의 복지지출도 많으며 이들이 많은 제공 기관과 지역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임.
- 분화되었지만 대상자 밀도가 높아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계획된 사업과 예산을 기간 내에 수행하고 지출해야 하므로 제공기관 내부의 사업에만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음.

48) 송인주, 2015: 22쪽.

- 제공기관이 많을 경우 협력을 위한 기구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타 기관과의 협력동기가 낮음. 따라서 협력 시 낮은 수위의 협력 또는 정보공유 수준의 협력을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함.

물론 복지지출이 높은 부분을 지적하는 문맥이지만, 서대문구 내부에서 복지지출의 편차가 고를지에 대한 의문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의 「2016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서대문구 내에서도 지역적 편중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수가 남가좌동, 북가좌동, 홍은동, 홍제동, 천연동에 몰려 있다. 또한 서대문구청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목록”을 살펴보면, 서대문구에 등록된 각종 사회복지시설 375개 가운데 북아현동에는 24개이며, 이 가운데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교실 2곳이 전부다. 충현동까지 포함해도 노인 관련 시설은 5곳이 전부다.⁴⁹⁾ 한 자치구 내에서 사회보장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이 같으리라는 전제는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아현동은 더욱 그렇다. 더욱이 편중도 차이는 ‘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는 흔한 상식으로 읽히는데,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도 있다.⁵⁰⁾

49) 이외에도 네 곳의 경로당이 있다.

50) 그렇다고 지자체의 한계만을 탓할 수는 없다. 서대문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예를 들어, 기초단체의 조사로 찾지 못한 독거노인을 발굴하기 위해, 별도의 콜센터나 카카오톡을 통한 신청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신고의 요령도 꽤나 상세하다.

- 난방시설(보일러) 등이 없거나 고장 난 가구
- 악취가 나거나 쓰레기 더미가 쌓인 가구
- 우편물이나 전단지 등이 문 앞에 쌓여있는 가구
- 갑작스런 위험(주소득자 사망, 실직, 질병 등으로)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가구
- 기타 복지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저소득 빈곤계층 가구
- 가장의 사망 등 긴급한 위기 사유로 인한 취약가구

게다가 동주민센터를 복지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실행 중이고, 긴급복지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간병, 양육, 공공요금 체납, 채무자 구제 신청, 채무변제 유예처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긴급생계, 의료,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다(「서대문 마당」, 2016년 2월호: 3면, 6면).

2) 사회복지관과 노인

사회복지관은 자선기관일까, 복지시설일까?⁵¹⁾ 과거, 해방 후, 한국전쟁과 함께 해외원조단체의 원조물자와 원조사업에 기반을 둔 사회사업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연구대상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1956년에 캐나다 연합선교부 주한미군 군수원호처(AFAK), 국제연합 한국재건국(UNKRA), 한미재단(AFK) 등의 원조를 받아 만들어진 (최초의 사회사업과에서 설치한, 게다가 사회복지관의 전신인) ‘사회관’이었다.⁵²⁾ 지역에 몰린 전후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간호대학, 근방의 부설 모자보건소 등과 연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사업, 탁아사업 등을 진행했다.⁵³⁾ 소개에서는 1960년대 들어 지역조사활동과 탁아 시설 제공, 교육과 보건사업 등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⁵⁴⁾ 그러나 사회사업이 지속해서 시혜적 영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측면이 있다. 시혜적인 사회사업이 사회보장의 더 보편적 권리로 인식이 이루어지는 데는, 앞서 살핀 정책적 변화와 (제도를 기반으로)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더 이상 시혜적 자선기관은 아닐지라도, 정책과 민관이 만나는 자리로서 사회복지시설

51) 구한말부터 활동을 시작한 선교사가 선교와 종교적 신념에 기반을 두고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직접 만나 지원활동(즉, 사회사업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다. 이런 성격은 해방 이후의 원조에 기반을 둔 사회사업으로 연결되고, 포괄적인 사회부조제도가 발달하지 않고 복지가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도록 기여한 것이다. “권력에 의해 온정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채택된 특수한 대상에 대한 지혜와 자선의 방식”은 여전하며, “다소 관제화 된 방식으로 형성된” 민간의 사회연대 역시 그 궤를 잇는다(정근식·주윤정, 2013: 16쪽). 이러한 근대적 개념의 사회사업 흐름은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그리고 자선과 사회복지를 혼동하게 한 한 기원이다.

52)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관은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개관한, 현재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대학에 처음 설치된 사회사업과에서 운영한 첫 복지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즉, 연구와 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게다가 ○○는 ‘기독교사회사업학과’가 1947년 최초로 설치되었고,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 출신의 박보희, 오하이오주립대의 김선심, 조지아대 출신의 김선심, 스텔릿대 출신의 문인숙 등 미국출신의 젊은 교수들이 지리 잡고 있었다. 당시 학술연구에 중심을 둔 서울대와 달리 사회복지관을 통해 실습교육을 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조직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다. (“대학 선택, 어디로 갈 것인가 <1> 인문 사회계열 (6) 사회사업학과”, 『경향신문』, 1975년 11월 27일자 기사 참조)

53) <http://www.ewhawelfare.or.kr/shop/page.php?pcode=640> (○○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54) 이 자료를 살펴본다면 북한지역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서쪽 지역에 살았던 “피난민” 혹은 “이촌향도”한 사람들의 처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을 이해할 수 있다.

북아현지역에서 접근이 쉬운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다. A의 눈으로 볼 때, 각 복지관은 특성이 각기 다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조직활동을 하기에 쉽고,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거리가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점심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곳이며, ◎◎실버복지관은 가장 가깝지만 서대문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곳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충현동에 위치해있지만, 거리상으로 가까운 복지관이다.⁵⁵⁾ A가 생각하는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종합사회복지관이 2016년 초에 시행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노케어-도시락 배달),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어르신 통합 사례관리, (장기요양등급외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2등급 이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이동목욕 서비스, 컴퓨터와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노인교육문화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진행한다.⁵⁶⁾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실 위기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요사이에는 북아현지역의 뉴타운 개발에 따른 지역 변화의 대안을 모색 중인 상황으로 보인다.⁵⁷⁾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2015년에 실시한 사업을 살펴보자. 경로당활성화 보조금사업, 무료급식,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성인문해교육, 학습동아리보조금, 독거노인친구만들기 등의 활동이 있었

55) A는 복지관으로 진입하는 길이 무척 가파른 편이라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56) ○○종합사회복지관, 2016, 「좋은 친구」, 제161호.

57) A복지관의 “2016년 운영위원회 회의록”(2016년 7월 6일)

다.58) 그러나 “교통이 망해서 못 가. 나 거기 참 덩기면 내가 별거 다 할 거야. 그럼 내가 댄스 같은 거, 댄스부(에) 들고 싶어도, 그잖아? 댄스 추니깐. 거 칩서 ... 뭐 배우려고 멀어서 못 가겠어.” 이처럼 거리의 문제가 크다.

[표 3-2]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노인관련 사업 보조금 목록

보조금	수령월	분할 지급	보조기관
경로당활성화 사업보조금	2015년 2월/4월/7월/9월	4회	서울시
무료급식 사업보조금	매월	12회	서울시
식사배달	매월+동절기 확대사업비(11월)	12회(13회)	서울시
밀반찬 배달	매월+동절기 확대사업비(11월)	12회(13회)	서울시
노인사회활동지원비	2015년 1월/2월/2월/4월/6월/7월/9월/10월	8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대문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015년 2월~12월	12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2015년 3월~2월	10회	
독거노인친구만들기	2015년 4월/8월/12월	3회	
성인문해교육 보조금	2015년 4월/7월	2회	
학습동아리지원 보조금	2015년 7~10월	4회	서대문구

위의 프로그램들이 가능한 것은 대개 중앙정부 혹은 서울시의 지원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다.59) 그러나 모든 일을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 별도의 행사와 프로그램을 위해 외부의 후원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 비해 기업을 비롯한 외부 후원을 받는 것이 힘들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드는 품이 덜 들기 때문이다. 가령 기업에서 찾아와 봉사활동을 할 때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노인들에 비해, “모아놓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60)

58) 시립△노인종합복지관, 2016, 「2015년도 결산보고」.

59)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위의 글: 41~46쪽.

60) 한 사회복지사의 구술, 2015년 8월 19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가운데 도시락 배달, 밀반찬 배달 사업은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노인들은 동시에 중복된 공간에서 도시락을 받을 수는 없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6년 아래 표와⁶¹⁾ 같이 제공하고 있다.⁶²⁾

[표 3-3] ○○종합사회복지관 밀반찬 서비스 목록

	1일 제공 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단가	제공횟수
일반식	18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800원	매주 월~금 5일간 일주일치 식사
밀반찬	25명		3,500원	매주 2회 일주일치 밀반찬 제공
치료식	45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경증 대상자(20명)	4,100원	매주 월~금 5일간 일주일치 식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및 저소득 계층,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중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는 중증 대상자(25명)	4,550원	

이 같은 먹거리 외에도, 복지관을 통해 기존에 끊어진 사회참여활동을 다시 하게 된다. 북아현동은 잘 알려진 대로 재개발로 인해 공간에 변화가 생겼고, 재개발 이전의 인간관계가 끊어진 공간이다. A는 오랫동안 살아온 한옥과 그 근방이 재개발 지역이 포함되던 8년 전쯤, 현재의 집으로 이주해왔다. “거기가 다 헐렸잖아. 다 이사 갔어. (이제는) 노인정 할머니들만 잘 아는 거지.” 게다가 “휴대전화를 살 적마다 바뀌어서 전화가 다 두절”됐다.

61) ○○종합사회복지관, 2016, 「○○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6-01호 “어르신무료급식지원사업(도시락/밀반찬) 입찰 공고”.

62) 4장 2절 “혼자 먹는 식사”(97-99쪽) 참조.

이러한 상황은 A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노인들에게 낯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아현동에 오래 살았지만, 여기 이사 온 건 십 년 안 돼’는 동네 노인들에게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사회복지관도 고민하는 지점으로 보인다. 식사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는 데서, 지역 내에서 시급한 문제를 푸는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하나의 문화자원으로도 가능하다. “지역 내 어르신들의 조직화. 그런 걸 구성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끔 같이 조직화를 하셔서 텃밭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뭐 천연비누, 향초, 모기퇴치제 이런 것도 만드”⁶³⁾는 등의 지역 조직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는 시도 또한 새로운 인적 자원의 구성 시도로 보인다. 그래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A프로그램’과 ‘B프로젝트’다. A프로그램은 정보교육, 소모임활동, 북아현 역사문화 탐방 등을 아우르는 사업이며, B프로젝트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주민소모임과 주민축제를 기획하는 프로그램이다. A는 특히 A프로그램에서 임원을 맡고 있다. 구청을 통해 알게 된 향수나 화장품 만드는 강좌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현재에는 자신이 활동하는 경로당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관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널리 알려졌다고 피,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다 보니, 보조금의 수준 “에 맞춰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자격요건도 그렇고, ... 진행하는 방법도 다 구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 말이다.⁶⁴⁾

더군다나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며, 어떤 경우에 사각지대에 처한 이를 알고 있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발생한다. “수급자는 아니시고 일반이신 분들. 자녀는 있으신데 좀 돌보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해서는 저희가 해 드리고 싶어도 보조금으로 들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할 수가

63) 사회복지사 구술, 2015년 8월 19일

64) 사회복지사 구술, 2015년 8월 19일

없는 거죠.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이처럼 후원 상황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은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실 수가 있다,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받아서 연결을 해드리는 거죠.”⁶⁵⁾ 사실 A의 상황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기 힘들고, 복지관이 (자격요건이 덜 엄격한) 민간 후원이 들어오는 경우어야 지원하는 대상 중 하나인 셈이다.

3) 독거노인 돌봄과 ‘생활관리사’와 관계의 중요성

도시의 특징이 무얼까, 더군다나 현재 서울이란 도시의 노인 문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분절된 인간관계로 소집단 중심의 금전적이고 개인주의적 공동체로 재편된 공동의 상황은 널리 알려졌다. 이 공동체는 이전에 비해 매우 유동적이라 “생성과 소멸, 이합집산이 빈번”하다. 즉, 지연(地緣)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는 지적은 분명 유효하다.⁶⁶⁾

노인들의 가족과 동거 여부는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 1995년에는 10명 중 4.6명이 자녀와 함께 대가족을 꾸리고 살았지만, 2010년에는 10명 중에서 2.9명 정도가 대가족으로 살며, 3.4명은 부부가 산다. 혼자 사는 사람은 1995년 1.3명에서 2010년 2명으로 늘어났다. 부양하지 않는 사회로의 변화가 아닌가. 게다가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학력이 낮고,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곤율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의 1.15배에 해당하는 33.9% 정도의 빈곤율을 보인다.⁶⁷⁾

1인 가구, 다른 표현으로 독거노인에게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는 무척 중요한 것이

65) 한 사회복지사의 구술, 2015년 8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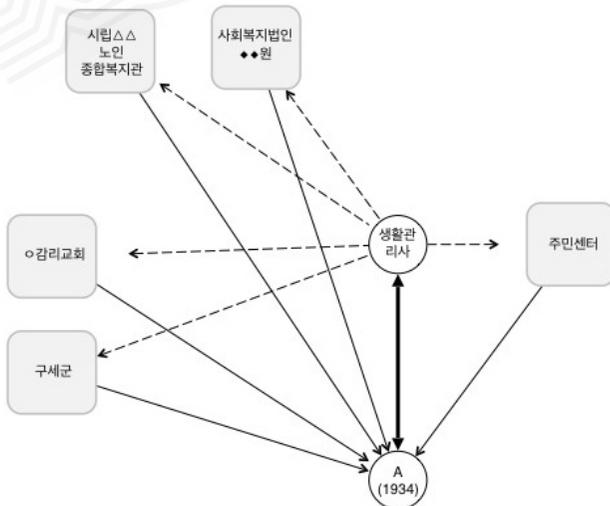
66) 정형호, 2011: 289-291쪽.

67) 김경혜, 2014: 6쪽.

다. 즉, 가족으로부터 유입되는 자원이 부족하며, (복아현동의 경우) 재개발로 인하여 지역에 변동이 생기고, 기존의 사회적 관계들이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이전과 다른 자원의 통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살펴보자.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여긴다.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는 2개월 단위로 만 65세가 되는 주민등록상의 1인 가구를 일괄 등록하고, 동 단위에서 독거노인을 ‘발굴’한다. 시 단위에서 거점서비스관리자를 채용하고, 구는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를 채용한다. 서비스관리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독거노인을 집중관리한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1일 5시간 동안 일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노인들을 관리하고 있다. 주로 가정방문과 전화를 이용해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교육과 지역 내의 기타 서비스와 연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A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이다. 즉, A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독거노인’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래 그림은 A가 생활관리사를 통해 연계된 자원들을 표현했다.



[그림 3-1] A와 생활관리사를 통한 관계도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자.

우선 A는 생활관리사가 하는 일에 대해 “노인들 그냥 병나면 어디 데려가야 되고 수시로 관찰을 하더라고. 자기네가 와서 아플까 봐. 또 예를 들어서 인제 복지관에서 뭐 주는 거 있으면 타라고 얘기해줘. 동에서 뭐 좀 연락하고 그렇더라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 더욱이 생활관리사는 일종의 행정절차로, A의 생활과 이용 중인 기관과 소득수준, 일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생활관리사는 3년 전에 처음 A를 대상으로 만났다. A는 이전 생활관리사에게 지원을 받았지만,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한 듯 보인다. 이에 반해 현재 생활관리사는 A에게 아래처럼 말할 정도로 큰 믿음을 준다.

“복지사[생활관리사]를 사회복지사로 알고 있다]가 얼마나 고마운지. 복지사[생활관리사]한테 애로점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랬어. 내가 전화하면 뭐든지 답변해주마. 얼마나 고마워. 그런 역할. 중간 역할을 참 잘해.”

이렇게 생활관리사와 일종의 라포가 형성된 계기는 말 그대로 “중간 역할”을 해 준 첫 사람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닌 A의 처지가 영향을 미친다. 69쪽에서 밝히겠지만, A는 동사무소에서 가난한 처지의 A가 아닌, 경로당 임원인 A로 인식된다. “구차하게 여기 (부)회장을 하면서 동회직원 [주민센터 직원]에게 말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말이다. “딴 사람들은 ... 이결(책상) 치면서 야단한다. 왜 나 안주냐고. (난 그렇게는) 안 해. 아유, 아주 그냥 동에서 잘 사는 줄 아는데, 그까지는 내가. 아이, 그래요”라며. 행정서류상으로 “아들도 잘사는 줄 (알고) 있고,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었(지). 또 영감도 있어” “잘 사는 줄 안다”고 말이다. 묻지 않았지만, 이같이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은 사람이 바로 생활관리사다.⁶⁸⁾ 이후에 생활관리사가 집에 방문했고, 생활관리사가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이번에 (A의 처지를) 얘기했다” 한다. 또 인근

68) 2016년 10월 27일, 생활관리사와의 인터뷰 참조.

구세군에서 지역 노인을 위한 물품(쌀 1kg, 콩기름 하나, 설탕 하나, 라면 다섯 개들이, 밀가루 하나, 미역 하나)을 나누어줬다. 같은 경로당의 한 노인이 수령을 거절하면서 빈자리에 A를 추천하여, A가 물품을 받게 되었다. “처음이야, 이런 거”라 말하는 것처럼 A가 노동하지 않고 얻은 첫 번째 후원 물품이었다. “나 진짜 창피하지만, 나(보고) 타느냐고 (생활관리사가) 물어보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야. 이 우연한 사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처지와 사회의 “중간 역할”을 해줄 사람을 만났다.

3_노인일자리사업과 자원조달

노인들의 취업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5세 인구의 취업률은 2000년 29.4%에서 2015년 30.5%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65~69세 인구의 76%와 70~79세 인구의 57%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돈을 벌어들인다. 낮은 고용률에 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대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소득을 올리는 것일지 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노인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61.3%)’과 ‘일하는 즐거움(30.9%)’을 들고 있다. 상당한 노인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통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처지로 여겨진다. 노인을 문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시화된 통계로 드러난 문제이며, 시민 상당수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 「사회조사」의 항목 중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 문항이 2007년 66.4%(1순위), 2009년 66.4%(1순위), 2013년 44.8%(2순위)로 항상 상위항목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서 여성노인의 취업률이 15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은 노인 가운데서도 여성노인의 특수한 처지에 사회에서 더 관심을 두라고 요구한다. 비단 남성보다 여성노인의 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각 연도)

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여성노인은 2000년에 22.7%가, 2015년에는 22.9%가 고용되었다.⁶⁹⁾ 낮은 고용률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경우도 많다. 정확히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연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2016년 3월호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14만 7천 명이 늘어났고,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21.7%인 133만8천 명에 달한다.⁷⁰⁾

노인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는 서울시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대책에 조응하는 서대문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⁷¹⁾ 2015년 서대문구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416명의 노인을 창출했다.⁷²⁾ 노노케어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생활시설 이용 노인을 찾아간다.

2016년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관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노인회 지회 등의 총 15개 기관을 통해 2,755명(서울형 사업 10명을 포함)에게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월 30시간의 노동시간을 채우면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통은 월 10회 동안 3시간씩 일하는 방식을 택한다. 더 자세히 보면, 서대문구에서는 총 59개의 사업이 계획됐다. 유형별로 나누면 노노케어, 거리환경지킴이, 공원가꿈이 등의 51개 사업은 **공익활동형**, 학교급식도우미나 폐현수막 리폼사업 참여 등 7개 사업은 **시장형**, 고령자취업지원사업은 **인력파견형**으로 나뉜다.⁷³⁾ 일단의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69) 「경제활동인구연보」의 65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을 최근 5년간 살펴보면, 고용률이 경미하게 올라갔다다 다시 내려왔다. 2010년에는 21.2%, 2011년에는 21.4%, 2012년에는 22.6%, 2013년에는 23.1%, 2014년에는 23.5%, 2015년에는 22.9%가 고용되었다.

70) 비정규직은 2009년 3월에 537만 4천 명에서 2016년 3월 615만 6천 명으로 78만 명가량 늘어났다. 이 가운데 남성은 2009년 262만 6천 명에서, 2016년 276만 1천 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데 비해, 같은 기간 여성은 274만 8천 명에서 339만 5천 명으로 급증했다. 게다가, (남녀 모두 합쳐) 60대 이상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9년 13%에서 2016년 21.5%로 늘어났다.

71) 서울시복지재단, 2014: 177쪽.

72)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2016a: 10쪽.

73) 서울시에서 공개한 「2016년 자치구별 인력파견형사업 현황」에는 서대문구의 사업이 없다.

이 가운데 공익활동형이 2,110명으로 가장 많고, 시장형이 545명, 인력파견형이 100명을 모집할 계획을 세웠다(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2016b: 붙임 1 참조).⁷⁴⁾

[표 3-4] 서대문구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과 주요내용

유형	활동비	참여기간	활동시간	주요 사업	참여자격
공익활동	20만 원	9개월	일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0만 원	연중 (12개월)			
시장형 사업단	—	연중	근로계약서 상 정한 시간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지역영농사업, 기타 공동작업형 사업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 매장운영사업, 아파트택배 사업, 지하철 택배 사업, 세차 및 세탁 사업, 기타 제조 및 판매 사업 (환경정화, 이미용, 수선, 공원관리, 재활용 사업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모니터링, 주정차질서 계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CCTV 상시 관제, 스쿨존 교통지원, 폐현수막 재활용, 자전거 보관관리 및 수리 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기타 전문 서비스형 사업	
인력파견형사업단		연중	근로계약서 상 정한 시간	수요처 요구에 의해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와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A는 몇 년 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노인일 자리를 경험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인일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A가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주차장관리는 그 결과이다.

74)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이 56억8천4백만 원 정도인데 시비가 19억9천6백만 원, 구비가 19억8천3백만 원, 국비가 17억5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2016b: 붙임 1 참조).

우선 어떤 방식으로 신청했는지 살펴보자. A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노령연금 타는 사람. 저기 이십만 원 타는 사람들 한해서 일을 (할 수 있어.)” 이후, “신청해. 삼월에 시작해. 이월에 신청하면 삼월부터 하거든. 그러면 열 달해. 열 달. 그러면 추울 때는 방학이야. 안 해.” 실제로는 9개월 사업과 12개월 사업으로 나뉜다. 아마도 10개월이라고 말했지만, 9개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에 설명하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경로는 ‘동주민센터 - 경로당’으로 보인다. 아래 이야기를 보자.

“구청에서 “이런 거를 허십쇼” 허구 그럼 공무원이 동으로 오면 동에서 노인정으로 와서 할 사람 신청을 하라고 그래. 여러 가지 것을 내놔. 어느 것 가냐. 어느 것 가냐. 그럼 조금 정보가 낮은 사람은 제일 나쁜 거를 가고. 자기 하고 싶은, 처음엔 자기가 선택권이 있어. 빨리 내는 사람은 자기가 써 놓은 대로 하고 그래.”

A는 현재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노노케어의 하나로) 밀반찬배달·안부서비스, 거리청소, 공원관리를 경험했다.

먼저 밀반찬배달은 충청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원에서 주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주 2회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밀반찬을 전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간단한 심부름을 대행하는 일이다.⁷⁵⁾ 하지만 A에게 밀반찬배달·안부서비스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우선 긴 이동거리가 문제였다. 북아현동에 거주하는 A가 경기대 서울캠퍼스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원까지 가서 밀반찬을 들고 충청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밀반찬을 “갖다 줘야” 된다. “거기 가서 가지고 오고”하는 일은 비슷한 나이의 다른 노인들에 비해 건강하다고 하지만 그녀에겐 “힘들고” “번거”로웠던 일이었다.⁷⁶⁾

⁷⁵⁾ <http://www.hyolimwon.or.kr/>(사회복지법인 ◆◆원 홈페이지)

북아현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북아현동 거리청소도 A에게 좋은 일자리는 아니었다. 거리청소는 오전 7시에 시작하여 오전 9시까지였다. 각 조는 다섯 명이 한 조를 이루고 조마다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었다. A가 거리청소를 할 당시 담당했던 구역은 북아현동 경남아파트 일대로 가파른 계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노인네들 다리가 아프니까” 상대적으로 다리가 덜 아픈 A가 “아 다 앉아 계십시오”라고 말하곤 매번 그 계단 일대를 A 혼자서 청소했다.

계단을 혼자서 청소하는 것보다도 A를 힘들게 했던 것은 낙엽이었다. 특히 “은행잎”이 “떨어질 때”는 “죽겠어”라고 기억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거리청소에 참여했다. 거리청소 이후에 “좀 나은” 노인일자리를 찾던 중 신청한 노인일자리가 바로 선화유치원 앞에 있는 공원관리였다. A에게 공원관리는 거리청소보다 “괜찮은” 일이었지만 여전히 가을에 떨어지는 은행잎이 문제였는데 “은행잎이 그냥 떨어지는 게 열 포대”나 되는 걸 청소하고 나선 “야, 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또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찾던 A에게 포착된 일이 바로 북아현동에 위치한 주차장관리였다. 원래 ○○경로당에서 주차장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꽤 오랫동안 담당해오다가 올해 몸이 아픈 관계로 주차장관리를 더 이상 못하게 되었다. 주차장관리가 다른 노인일자리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한 A는 이 정보를 듣고 재빨리 신청했다.

A는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 연구자에게 “이번이 제일 좋아.”라고 말할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그녀가 주차장관리에 만족하는 이유는 우선 거리청소와 공원관리에 참여했을 때와는 달리 나무가 없어 “떨어지는 게” 없어 육체적으로 덜

76) “아휴 그거는 할머니가 오지 말래……. 그런데 거기는 밥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인제 나라에서 그거를 주더만. 돈을 집세도 내주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다 돼. 거기서. 그리고 도우미도 보네. 도우미는 또 말벗을 또 거기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하다 보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갔어. 그런데 귀찮네. 할머니가. 퇴짜 맞았어.”

힘들다는 점이다. 그리고 오전 7시 이후 주차장을 청소할 때 살펴보면 빈 병들이 “보통 세 개, 네 개씩”의 맥주병 혹은 소주병들이 나오고 종종 “모자, 신발” 같은 의류도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관리라는 ‘일’을 하는 동시에 ‘폐지수집’이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은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꾸준히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들에게 경제적 측면 외에도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⁷⁷⁾, 개인의 건강⁷⁸⁾과 사회관계 형성⁷⁹⁾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렇지만 A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일’은 같은 ‘일’이 아니었다. 거주지와 ‘일터와의 거리, 자신의 몸 상태에 적합한 ‘일’의 강도 그리고 ‘일’을 통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A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A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정보를 꾸준히 모으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노력’의 결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에서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4_경로당 활동과 자원조달

한국에서 경로당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신축·정비되었다. 1970년대 후반 전국 단위의 노인 단체가 조직되어 ‘노인정’의 필요성을 주

77) 김소향·이신숙,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韓國老年學』 29-1, 309~327쪽.

78) 임재영·이석원, 2008,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연구”, 『保健經濟와 政策研究』 14-1, 75~102쪽.

79) 이소정, 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노인복지연구』 59, 한국노인복지학회, 331~354쪽.

장하고 1978년부터 아파트에 경로당의 설립을 의무화함으로써 그 수가 증가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고 1989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경로당'이란 명칭이 공식용어로 채택됐다. 1990년대 이후 각 지역에서 큰 규모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경로당의 수도 급증했다.⁸⁰⁾

현재 <노인복지법> 36조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된다.⁸¹⁾ 하지만 A에게 경로당은 위에서 정의된 역할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platform)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A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경로당에서 하는 활동을 임원단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활동을 통해 어떤 자원들을 조달·공유·교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단, A가 경로당에서 조달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인 식생활 관련 자원의 조달과 공유·교환은 5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논의에서 제외한다.

1) 경로당 임원활동

○ 경로당은 적어도 1989년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경로당이다. 현재 ○ 경로당의 자리로 이전해온 계기는 2000년대 공공기관을 신축하면서 경로당을 공공기관 안으로 옮겨오면서부터다. 2016년 현재 여성 45명, 남성 36명으로 총 81명이 경로당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장 1인에 부회장 3인, 이

80) 이근홍·이화영, 2011: 173~174쪽.

81) [http://www.law.go.kr/\(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사 3인, 감사 1인, 총무 1인⁸²⁾의 임원단을 두고 있다. 공식적으로 경로당은 월~금요일, 하절기에 9~6사이고 동절기에는 9~5시까지 여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남자방과 여자방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각 방의 운영은 일정부분 이원화되어 있다.

A가 ○○경로당에 처음 등록하게 된 때는 8년 전으로 주변에서 다양한 지역활동의 경험이 있던 A에게 경로당에 들어와 임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해서였는데 A는 경로당에서 필요한 문서와 장부를 기록·작성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했다고 기억했다.

일반적 시각에서 경로당은 노인들이 모여 ‘노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법률상으로도 ‘자율적’으로 모이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지만, 실제 경로당의 운영에서 행정과 회계장부 작성은 중요시되고 있다.⁸³⁾ 행정과 회계장부 작성이 경로당 운영에서 중요한 이유는 경로당에 많은 자원이 모이기 때문이다.

○○경로당의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내는 연회비와 매달 구청에서 지급되는 운영비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각출하는 돈, 그리고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지역유지에서 일종의 찬조금 등이 들어오고 방송·인터넷 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신문구독료, 식재료비 등으로 지출된다. 이외에도 쌀·가구·가전제품 등 물건들도 다양한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들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계장부 기록은 필수적이다.⁸⁴⁾

또한 ○○경로당은 서대문구청과 북아현동 주민센터, 그리고 소속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등과 행정문서를 주고받기 때문에 행정처리와 회계장부 작성이 원활히

82) 2013년 ○○경로당 회원전화부

83) 행정처리 미흡과 회계의 불투명성은 경로당 운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자주 논의되는 지점이며 이는 많은 경로당에서 문서와 회계장부 작성이 경로당 운영에 중요한 ‘일’임을 반증한다(이근홍·이화영, 2011: 175쪽 참조).

84) 2016년 6월 16일 C.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은 어렵다.

지금도 A가 경로당 임원으로서 하는 활동 중 중요한 ‘일’은 행정과 회계장부 작성이다. A는 경로당 내에서 컴퓨터를 쓸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경로당의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C⁸⁵⁾에게 배우는 동시에 ○○대학교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컴퓨터 강의를 통해 컴퓨터를 익혀 스스로는 “잘 다루”라고 할 만큼 컴퓨터 활용에 익숙해졌다.⁸⁶⁾

A는 회계장부 작성에도 관여를 많이 한다. 현재 ○○경로당에는 회계장부를 담당하는 임원이 따로 있지만, A는 그 임원이 “지출하면 계산서”를 받아서 “기재를 정확히”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자신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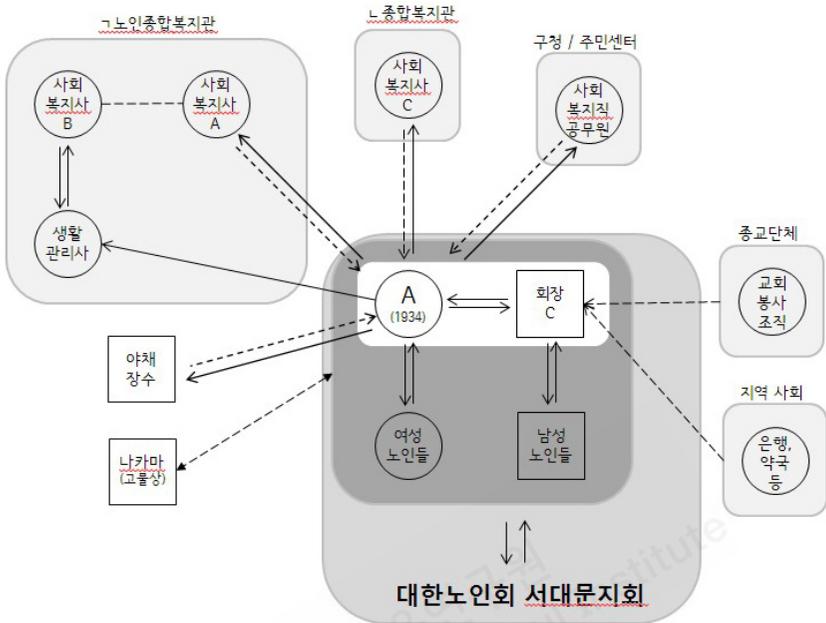
지역사회의 자원을 경로당으로 조달하는 것도 경로당 임원들의 ‘일’이다. A는 지역사회 자원을 경로당으로 조달하는 데 적극적이진 않지만, C는 경로당 임원으로서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센터 인근의 ㄱ은행의 협조를 끌어낸 일이다. C는 ㄱ은행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경로당 회원들을 대상으로 ㄱ은행의 은행계좌를 만드는 일종의 ‘운동’을 벌였다. C의 생각으로 이 ‘운동’의 결과 ㄱ은행 복아현동 지점장으로부터 2010년 이후 매년 추석 1회 / 설 1회에 50만 원씩 받아 ○○경로당 회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85) C 역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3개월간 배운 후에 컴퓨터를 배운 경험이 있다. (2016년 6월 16일 C 인터뷰.)

86) 현재 A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C가 자신의 업무를 A에게 자주 넘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6년 8월 9일 A 인터뷰.)

87) A는 유독 회계장부를 작성하면서 “속을 썩이”던 일이 많았는데 A가 회계장부 작성에 민감한 이유는 자신을 “보기 싫어 띄려고” “누가 투서”하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서 회계장부 감사를 몇 번 나왔었기 때문인데 그때마다 매일 적은 기록들을 바탕으로 서대문구지회에서 나온 감사가 “어머나 이렇게 잘해.”라고 놀랄 정도의 회계장부를 작성했다고 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 현재 A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임원 C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임원활동 도중 누군가의 “진정서”로 임원단이 감사를 받았지만, 매번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한다. (2016년 6월 16일 C 인터뷰. ; 2016년 8월 9일 A 인터뷰)



[그림 3-2]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관계도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모든 지원을 임원단 활동의 결과라고 단정적으로 말수는 없으나 지역사회로부터 조달되는 여러 자원이 경로당으로 지원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경로당은 은행의 지원 이외에도 가깝게는 2016년 춘계 야유회를 갈 때에 지역 약국으로부터 박카스 100여 병도 지원받았다.⁸⁸⁾ 그리고 ○○경로당 남자방에서 쓰고 있는 냉장고는 <굴레방동 목회사회>라고 하는 지역사회 종교단체에서 증정한 냉장고이며 경로당 회원들이 쓰는 안마의자도 한 회사에서 구입해 기증한 물품이었다.⁸⁹⁾

예전에 비해 최근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A는 주변에 있는 가구거리도 잘되지 않는다며 북아현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기존에 있던

88) 2016년 6월 16일 A 인터뷰

89) 물론 ○○경로당에 있는 전기밥솥, 냉장고, TV 등은 모두 서대문구청에서 지원해준다.

가게들이 많이 사라지는 등 상권이 축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⁹⁰⁾ A씨는 지역사회의 변화가 경로당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로당에서 이뤄지는 교육과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도 경로당 임원들의 ‘일’이다. A는 교육이 있을 때 강사와 연락하여 수업시간, 수업 진행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고 경로당 회원들에게 알린다.⁹¹⁾ 야유회나 정기총회 같은 행사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정과 장소 등이 정해지면 그 정보를 경로당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야유회는 경로당의 큰 행사 중 하나로 회원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도 매우 높은 행사이다. ○○경로당은 야유회를 1년에 1~2차례 가는데 포천 등지로 자주 가서 갈비 등을 먹고 당일 돌아온다. 야유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경로당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참가하여 인원이 많다.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데 인원파악 등을 잘하려면 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

경로당 임원으로서 A는 주민센터와 연관된 ‘일’도 종종 한다. “동에 예를 들면 교육. 문화교육”이 있을 때, “부탁”을 받는다. A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경로당으로 연락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주민센터는 “꼭” “올라오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이럴 때 경로당 회원들을 데리고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A는 주민센터의 “부탁”을 받고 참여했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특별히 경로당의 “편의”를 봐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래도 교육이 끝났을 때 “비누”나 “수건” 등 “뭐 하나씩” 받는다. 그리고 “잘 되고

90) C 역시 최근에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 경제가 전반적인 불경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곳은 ○○경로당만의 일이 아니었다. △경로당의 D 역시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경로당으로 보내오는 지원이 줄었다고 하면서 이는 불경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로사상’이 많이 약화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91) 한 사례로 ○○경로당에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교육강사가 여자방으로 와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강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구자가 A와 경로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수업을 하기로 한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그 시간까지 경로당으로 오질 않자 왜 강사가 오질 않는 것인지 아니면 늦게 오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2016년 9월 2일 A 인터뷰)

끝나면 고맙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A로서는 주민센터에 경로당과 관련해 요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A는 자신이 주민센터에 가면 “부탁하는 거 같아서” 공무원들이 싫어한다고 느낄 정도로 주민센터가 편하지는 않지만 결국 “부탁하는 거는 들어”준다고 생각할만한 관계를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A가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신문 같은 폐지를 독점적으로 수집하게 된 것도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폐지를 수집하여 경로당 운영에 보태겠다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로당의 사례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의 △△경로당 임원인 D 역시 경로당 임원이 “가만히 있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경로당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에 쌀은 ‘처음에’ 쌀을 40kg밖에 주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쌀이 부족하여 D가 60kg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공무원이 60kg은 규정에 있지 않아서 못 드리지만 50kg으로 10kg을 더 주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에서도 점심식사를 하는데 김치 등이 부족한 적이 있어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엔 주민센터에서 “노인정에서도 김치가 필요한 거요?”라는 물음에 D는 “성질을 내부”리면서 강력히 김치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동장에게까지 연락을 해 경로당에서 필요한 김치를 얻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⁹²⁾

경로당 임원들은 주민센터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 경로당 운영과 필요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C는 ○○경로당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주민센터뿐 아니라 서대문구청,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등을 방문해 최대한 많은 회원을 “취업”시켜주고자 노력했다. 실제로 ○○경

92) 2016년 5월 23일 D 인터뷰

로당의 50여 명의 회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⁹³⁾

이근홍·이화영(2011)은 경로당 운영비 문제 경로당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많은 경로당이 부족한 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 회비·찬조금 등으로 부족분을 충당했음을 밝혔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지원을 받는 데 반해 그렇지 못한 지역, 특히 군지역, 자연부락 내의 경로당은 외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대도시인 서울에 위치한 경로당 임원들에게서도 운영비 부족이 경로당을 운영하는 큰 어려움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보면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곧 경로당 임원진들의 능력평가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로당 임원들에게 왜 행정능력을 요구하며 그들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조달하려고 노력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2) 기타 활동⁹⁴⁾

A는 임원으로서 하는 활동 외에도 경로당에서 각종 심부름을 대행한다. 먼저 다음날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일부터 조사가 한창이던 여름에는 경로당에서 먹을 ‘하드’를 사러 가는 일, 심지어 회원 중 일부의 은행업무까지 대행해주는 등 다양한 심부름을 했다.

○ 경로당 여자방 내에서 A의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며 임원이라는 지위까지

93) 2016년 6월 15일 C 인터뷰

94) A는 경로당 임원으로 경로당에서 여러 ‘일’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경로당과 관련하여 그녀가 하는 모든 ‘일’ 혹은 활동이 임원으로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기타활동으로 구분한 이유는 이 부분에서 언급할 활동이 굳이 임원이라는 직위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경로당에 속한 개인으로 하는 활동으로 판단되어 기타활동으로 분류코자 한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심부름을 다니는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경로당 회원들의 몸 상태에 있다. 여자방의 많은 여성노인은 무릎 등이 좋지 않아 거동하는 데 힘이 든다. 그래서 “그 앞에 가는 것도 안 갈라”고 하는 반면, 여자방에서 A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A에게 “아휴 임원님을 누가 따라가?”라고 할 정도로 나이에 비해 거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 경로당 내 심부름을 자주 한다고 했다.

A는 개인적으로 가윗돈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를 수집하기도 하지만 경로당 활동의 하나로 폐지를 모은다. A는 경로당에서 자신의 식생활 대부분을 해결하지만 자신이 경로당에 물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적음을 미안하게 생각하다 적으나마 경로당에 물질적으로 보탬을 주고자 폐지수집을 시작했다. 경로당 활동의 하나로 폐지수집을 하기 시작한 후 “창피”함은 감내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요구해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폐지들을 모았다.

그렇게 경로당에서 또 다른 ‘일’로서의 폐지수집이 시작됐다. 이 ‘일’은 월~금요일 저녁에 주민센터에서 나온 폐지들을 모아놓는데 주민센터가 열지 않는 토요일은 폐지를 수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모은 폐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파는데 다른 경로를 통해 이뤄진 폐지수집과 달리 A 개인의 가윗돈으로 쓰지 않고 자신의 돈 일부를 합쳐 ○○경로당 여자방에서 먹을 믹스커피를 산다.

연구자는 2016년 10월 27일 ○○경로당에 모아 놓은 폐지와 신발, 옷가지 등을 폐지수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에게 판매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우선 업자에게 경로당에 모아 놓은 폐지와 기타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연락한다. 그러면 업자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개조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로당 인근 지역까지 끌고 온다. 업자가 도착하면 A는 비빠지는데 우선 여자방 문 앞에 쌓아놓은 박스를 꺼낸다. 이 박스는 날짜가 지난 신문지 등의 폐지들을 담아 놓은 것으로 이날 박스가 총 9개에 104kg 정도가 나왔다. 그리고 비품을 보관해 놓는 자그마한 창고에서 신발 한 뭉텅이와 옷가지들을 들고 나와 경로당 복도에서 무게를 잰다. 저울로 무게를 재는데 업자는 무게를 재면서 물품들을 정리한다. 무게를

다 재면 업자가 모아둔 폐지·의류·신발들을 가지고 가고 그 앞에서 바로 물건값을 치른다.

경로당 운영에 보태고자 폐지수집을 하는 A가 특별한 사례는 아니다. △△경로당에서 이전 임원단으로 활동했던 E씨⁹⁵⁾ 역시 △△경로당 인근 지역에서 폐지를 수집하여 경로당에 모아뒀다가 차로 폐지를 팔아 그 수익을 경로당에 썼다.⁹⁶⁾ 부족한 경로당 운영비를 충당하고자 임원이 나서서 처음엔 혼자 폐지를 수집하다 회원들도 참여하기도 한다.⁹⁷⁾ ○○경로당도 현재에는 A가 주로 폐지수집을 하지만 다른 회원 중에서 A의 목적에 공감하여 폐지수집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소수이지만 있다.

경로당에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도 버려진 물건들이 수집대상이 된다. A는 “이 샷집센터”가 “있을 때”는 “쓸만한 것들”이 “분명히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버려진 “그릇” 등을 경로당에 가지고 와서 공동식기로 쓴다. C 역시 차를 소유했었을 때에는 북아현동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버려진 기구들이나 가전제품 등을 수거해 경로당으로 들고 왔다. 경로당이라고 해서 꼭 버려진 것만 구해오는 것은 아니다. △△경로당 임원인 F⁹⁸⁾는 인근 주민으로부터 김치냉장고를 중고로 구입해 현재 △△경로당 2층에서 쓰고 있다.

95) 1938년생으로 호랑이띠였다. 고향은 충북 영동군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전쟁 때 자신의 집에서만 7명의 인민군이 죽었다고 했고 인민군이 점령했을 당시 공산당 소년단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 도중에 소년단원 시절 배운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1960년대 병으로 군대에 입대한 후 직업군인(부사관)으로 30여 년을 근무한 후 퇴직했다고 한다. 주로 연천, 포천지역에서 근무하였고 슬하에 4남매(2남2녀)를 뒀다. 포천 이동에서 주로 살았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문제로 73년에 서울로 나와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오랜 기간 사단본부에서 인사계로 복무했다. 92년 상사로 제대한 후 연금(약 200여만 원)으로 현재 생활하고 있으며 제대 후 여러 가지 봉사활동, 특히 새마을회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헌임회장 이전에 총무로 4년여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6년 5월 31일 E씨 인터뷰.]

96) △△경로당 임원진이 바뀌면서 현재에는 폐지수집을 하지 않는다.

97) 이근홍·이화영, 위의 글, 178쪽.

98) 2016년 현재 93세로 현재 △△경로당에서 최고령자이면서도 임원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식사도우미도 하고 있다.

A가 한가할 때 경로당에서 하는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화투이다. A는 주로 여자방에서 화투를 치기 때문에 같이 화투를 치는 사람들도 여성들이다. ○○경로당 여자방에서 화투를 치는 그룹은 크게 두 팀으로 나눌 수 있다. 한 팀은 점당 십 원짜리 화투를 치는 팀으로 쳐서 딴 돈을 다시 나눠주거나 하지 않는다. 다른 한 팀은 모아둔 돈을 공평하게 나눠 가진 후 화투를 치고 난 뒤에도 그대로 돈을 회수한 후 그 돈을 놔둔다.

A가 주로 같이 화투를 치는 사람들은 전자(前者)의 방식으로 친다. 인터뷰 당일에도 문화교육이 끝난 이후 쳐서 “이백 원”을 땀다고 했다. A는 쳐서 이긴 사람이 딴 돈을 나눠 갖지 않는 이유를 돈을 딴 뒤 나눠 갖는 것이 “깨끗”하고 “부담”없기 때문이라고 연구자에게 말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경로당에서 화투를 같이 치는 사람들과 A 사이에는 친밀한 사적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관계가 경로당 밖에서도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경로당 남자방에서 화투를 치는 방식은 여자방과 또 다른데 C에 따르면 “육백 원 고스톱”으로 1등이 300원 2등이 200원 꼴등이 100원을 받는 방식이다. △△경로당은 화투를 치고 난 뒤 딴 돈들을 모아 경로당에서 쓰이는 믹스커피나 먹고 싶은 것들을 사서 먹기도 한다.

경로당 화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飛禍)되진 않았지만, 경로당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경로당이 위치한 서대문구의회에서도 경로당의 문제점 중 하나로 거론되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대신할 방안이 구의원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⁹⁹⁾ 그렇지만 경로당에서의 화투는 외부에서 인식하는 것처럼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로당 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한다.¹⁰⁰⁾ A도 화투를 통해 사적 관계를

99) 서대문구의회에서 경로당 화투에 관한 논의는 몇 차례 있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회의는 2016년 2월 1일(월)에 열린 제22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로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이경선 의원은 경로당에서 화투를 대신할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참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제22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2016.]

공고히 하기도 하고 △△경로당 남자방과 ○○경로당처럼 화투를 통해 생긴 자원으로 다시 경로당 회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서 공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달리 경로당 화투는 단순히 놀이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3) A에게 경로당 활동이 지니는 의미

A에게 경로당 활동을 한마디로 하라면 바로 “봉사”이다. A는 “내 식구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으로” “뭘 사다가 베풀고 싶어도 나 그건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신에 “내 몸으로” “이런 것도 다” 해가면서 “봉사”, 즉 경로당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는 사전적 의미에서의 봉사와 A의 “봉사”는 특정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만난 경로당 임원들이나 경로당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 중 상당수는 경로당 활동을 “봉사”라고 여겼다.¹⁰¹⁾

그렇지만 A의 경로당 활동을 단순한 “봉사”라고 할 순 없다. A 역시 경로당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점심에 식사를 해결하고 공공기관과 지역사회로부터 자원을 경로당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달받는다. 더 나아가 사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토대도 형성케 하며 대외적으로도 ○○경로당 임원이란 직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또 다른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말대로 경로당 활동은 “봉사”인 동시에 자원조달을 위한 ‘일’이라고 해석된다.

100) 장세길, 2006, “경로당 노인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관계-전라북도 전주시의 아파트 경로당 사례”, 『지역사회연구』 14-4, 10쪽.

101) C가 대표적인데 종교단체에서도 임원을 지내고 “봉사”를 하기 위해 경로당에 왔고 현재에도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겹지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경로당에서 6년째 점심식사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여성어르신에게 D는 “봉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썼다. [참조 : 2016년 5월 23일 D 인터뷰, 2016년 7월 19일 C 인터뷰]

5_사적 자원을 통한 자원조달과 공유

1) 야채장수 “알바”를 통한 자원조달

A가 사적 관계를 통해 일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야채장수 알바이다. 이 야채장수는 3여 년 전부터 경로당 인근 길가에서 화물트럭을 대고 채소와 과일 등을 파는 사람이다. A는 어느 때처럼 경로당에서 먹을 식재료를 사기 위해 가격이 싼 상점을 알아보던 중 길가에서 좌판을 벌려 과일과 채소를 파는 “야채장수”가 싸게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다.

그렇게 야채장수를 알게 된 A는 어느 날 저녁 늦게 그에게 갔다. 때마침 야채장수는 장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채장수를 대신해 뒷정리를 돕자 야채장수가 “좋은 물건을 가져가시라고, 노인정에도 필요하면 갖다 잡수라”고 하면서 팔고 남은 식재료들을 챙겨줬다고 한다.

이후 A는 경로당에서 “퇴근”하는 오후 6시경에 야채장수에게 가 장사가 끝날 때까지 있으면서 장사와 뒷정리를 도와준다. 그렇게 야채장수를 도와주면 “파는 대로, 많이 좀 팔면 한 오천 원 주고 안 팔리면 저기 삼천 원”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많이 팔지 못한 날에는 돈은 아니지만 팔다 남은 물건들을 A에게 싸준다. 2016년 8월 16일 같은 경우엔 “못 팔았다고 가지만” 줬지만 그래도 “여섯 개에 이천 원”의 식재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게 야채장수로부터 받은 식재료는 경로당에서 사용된다. A가 이 식재료들을 가져가는 이유는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하기도 하지만 ○○경로당 부족한 부식비를 보충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6년 여름과 같이 날씨가 많이 더우면 식재료들이 쉽게 상하여 경로당에서도 이 식재료들을 다 해먹지 못하고 버릴 때도 있다. 그리고 그 수량이 적어 경로당에서 나눠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A가 집으로 가져가 먹기도 한다.

A와 야채장수 사이에는 일종의 상거래도 있는데 A가 야채장수에게 식재료를 떼

와 경로당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상적이지는 않으며 주로 여름에 채소와 과일 등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식재료들이 신선할 때에 한 번씩 하는 A만의 장사이다.

A의 장사방식은 다음과 같다. 야채장수가 감자 “한 박스”를 “만 오천 원”에 도매 상에서 구입하여 팔 때는 박스째로 팔지 않고 “그릇”에 감자를 몇 개씩 놓고 팔아 박스당 “사천 원” 정도에 이익을 본다. 야채장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A는 야채장수가 도매상에게 구입한 가격과 비슷한 가격에 감자 한 박스를 사서 야채장수와 같은 가격으로 경로당 회원들에게 감자를 몇 개씩 나눠서 판매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야채장수와 동일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이며 이는 흑여 회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야채장수가 파는 가격과 A가 파는 가격이 다를 경우 불만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A는 이렇게 장사를 해서 생긴 이익을 “심부름값”으로 여기며 생활비에 보탠다.

최근에 북아현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야채장수가 좌판을 벌이던 지역 역시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부닥쳤다. 일단 야채장수도 자신의 점포를 얻어 놓은 상황이지만 하는 데까지는 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야채장수가 A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 제안이란 바로 야채장수가 재개발사업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좌판을 열던 곳에서 좌판을 열지 못하게 될 경우 A가 A 집 앞에서 좌판을 열면 자신이 식재료를 “싸게” 납품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A는 ‘(집안을) 다 치우는 대로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¹⁰²⁾ 앞으로 A가 실제로 집 앞에서 식재료 좌판을 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적 관계를 바탕으로 A가 새로운 일을 창출할 여지는 남겨져 있다.

A만이 야채장수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A 외에도 야채장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30~40대로 보이는 남성장애인¹⁰³⁾이 있는데 그는

102) A가 좌판을 여는 데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데에는 그녀가 장사해봤던 생애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야채장수가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옆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은 야채장수와 장애인이 형제로 알 정도이다. 그만큼 야채장수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기에 자주 와서 일을 도와주고 장사가 끝난 이후에는 같이 놀러도 다닌다고 했다.

남성장애인은 주로 물건을 진열 정리하고 야채장수에게 배달주문이 오면 야채장수가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주문받은 물건을 배달하는 역할을 한다. A는 그가 한 번 배달할 때마다 천 원씩 받으며 많이 받을 때는 하루 오천 원 정도를 벌여 저녁식사 값은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북이현동에서 식당을 하는 여성 어르신이 있다. 이 어르신은 오후 4시쯤 야채장수에게 와서 일을 돕는다. 이 어르신이 2시간 정도 야채장수를 돕다가 A가 오후 6시경에 야채장수한테 가면 그때 자리를 뜬다고 했다.

연구자가 야채장수를 관찰했을 때에도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야채장수 근처에서 일을 돕고 있었고 시간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돕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바가 있어 각자 야채장수 근처에서 잡일을 도와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물론 야채장수 역시 자신의 일을 돕는 사람들에게 A에게처럼 남는 물건을 주는 것과 같은 일종의 보답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A씨에게 사적 관계는 사람 간의 친분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야채장수와 A씨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자원의 흐름을 보면 A씨가 자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야채장수와 사적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지만 A씨는 사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판단으로 자원을 조달할 가능성을 타진했고 자원 조달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 참여해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야채장수의 ‘일’을 하면서 A씨는 야채장수에게 가서 ‘일’하는 것을 “알바”를 한다고 표현하지만, 이는 고용자-피고용자와의 관계, 피고용자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분명 이 ‘일’ 역시 A씨에게 또 다른 관계를 파생시켰다. 문서로서 혹은 엄격하

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A씨가 ‘일’한 것에 대해 야채장수는 ‘대가’를 줌으로써 A씨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야채장수에게서 조달하고 있다. 그리고 느슨하지만 A씨와 야채장수에게 오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정해진 시간과 역할이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더 나아가 A씨는 일상적이진 않지만 물건을 떼다 경로당 회원들에게 파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냈다.

2) 부지런함을 증명하는 “폐지수집”

폐지수집 노인을 정의할 수 있을까? 육하원칙에 따라 정의를 내린다면, ‘몸과 마음이 불안정한 처지의 노인들이 골목에서 재활용품을 주워 파는 노인’이 아닐까. 이 정의란 진입과 수집 및 판매를 염두에 둔 정의다. 그러나 앞의 정의나, A의 구술을 통해서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언제 줍고, 어떻게 줍고 어떻게 운반하는지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A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은, 가윗돈의 형태라라도 생계비에 보탬을 줄 생각이었던 걸로 보인다. “돈(이) 다 없어졌어.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했지 뭐.”라며 말이다. 이때가 7~8년 전쯤으로 현재 거주하는 한옥으로 이사 온 시기와 경로당에서 활동을 시작한 시기와 겹친다. 모은 폐지를 파는 것은 정기적이지 않다. 파는 시기도 꽤 떨어져 있는데, 일 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모양이다. 받는 값도 많아야 3만 원 정도라고 하니 생계유지에 가장 중요한 자원은 아닌 셈이다.¹⁰³⁾ 그렇기에 흔히 ‘생계형’으로 불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녀는 폐지를 최근에 재개발지구의 한 주차장에서 임시영업하며 “딸딸이”를 끌고 북아현동 일대를 쏘다니는 ‘나카미’ 부부나, 윗동네에 있는 고물상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판다. 전반적인 양상은 이렇하지만,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폐지수집 행위로 볼 필요

103) A의 생활 전반과 살펴보면, 폐지수집은 앞서 3장 4절 2항의 ‘기타 활동’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노인들과 함께 폐지를 수집해서 정기적으로 팔아 믹스커피를 사는 것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는 없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의 발굴이 아니라, 도시에 사는 한 노인이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노인에게 필요한 자원, 그리고 최소한의 보장이 무엇일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럼 A가 언제, 어떻게 폐지와 재활용품을 주워다가 어떻게 파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그녀가 폐지를 수집하는 시간은 뜻밖에 규칙적이다. 이는 그녀의 하루 생활이 아침시간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경로당 활동이라는 비교적 규칙적인 일과가 있기 때문이다.¹⁰⁴⁾ 그녀는 폐지를 수집하기 위해 골목을 돌아다니지는 않는다. 그저 다른 일,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검사검사 골목에 내놓은 재활용품을 수거한다.

여기에서 “새벽에 거리에 나선 이들은 생활에 곤궁함 때문이 아닌가”¹⁰⁵⁾라는 2015년의 추측을 다시 확인해보자. 새벽이란 시간은 “숨은 노동, 보이지 않는 노동, 자고 일어나면 요정이 다녀간 듯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노동이 눈에 들어”¹⁰⁶⁾오는 시간이다. 그 모습에는 “불안과 위험에 동요하고 열광하며, (졸음 탓에 함부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순간”에 일을 해야만 하는 여러 사연이 숨겨져 있다.¹⁰⁷⁾ 다시 강조하지만 “어느 시간에 잠을 자고 일을 하느냐는 폐지수집에 나선 여성노인들의 빈곤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¹⁰⁸⁾

A는 새벽에 재활용품을 주울 필요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술에서 빈곤의 상황이 아니라,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위험에 대한 불안이다. “새벽에 댕기다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교회 가다가 다쳤어……. 그래서 새

104) 노인일자리사업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다. 한 달에 열흘 정도에 불과하긴 하다.

105) 소준철·서종건, 위의 책: 73쪽.

106) 연구자(소준철)가 골목길을 나다니고 난 후 페이스북에 소회를 남긴 적이 있다. 이 소화에 르포작가이자 연구자로, “타인의 온전성에서 한없이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김민섭이 댓글을 남겨줬다. 자신이 본 새벽 2시의 풍경 사진과 함께 말이다. 그의 절묘한 댓글을 옮겼다. (출처: <https://goo.gl/Equ4Wj>)

107) 소준철·서종건, 위의 책: 73쪽.

108) 소준철·서종건, 위의 책: 73쪽.

벽까지 어디 안 댕겨.”라며 말이다. 여기에는 나이 든 사람의 고단함이 녹아있다. “차에 치이면, 그니까 보상이 문제가 아냐. 드러누우면, 내 몸(을) 움직이지 못 해. ... 며느리, 자식 다가[전부] 고생시키는 거야.” ‘드러누우면’이란 (가능한) 문제는 가족의 고생이라는, 가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자면, 새벽의 노동에 대한 불필요란, 낙낙지 않은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가족에게 부담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항목에 대한 답은 마땅히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A가 말하는 ‘직업의 귀천’에 관한 구술에서 정의와 분석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이전에는 폐지를 줍고 운반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신체의 건강함과 체력이 운반수단을 선택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¹⁰⁹⁾ 하지만 운반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폐지수집 행위의 의미를 간과했다는 문제 역시 존재했다.

A는 “사는데 이거 직업에 귀천이 있어? ... 나는 그래, 나는 그래. 그전에도 잘 하고[잘 살고] 했어도, 그게 무슨 상관있어.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라고 덧붙였다. 현재의 어떤 자원들을 조달하고 이용하기 위해 했던 일들, 경로당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임원활동, 심부름, 야채장수 트럭에서 알바를 하는 일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상반된 의견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일에 대한 다른 의견이다. 폐지를 수집하는 일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프먼이 말하는 타인들로부터의 ‘처신(demeanor)’이 아닐까.

가방이 아닌, 카트나 노인용 보행기, 리어카 같은 큰 운반도구들은 대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마련이다. 그래서 A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는 주차장이나 경로당에 갈 때, ‘가방’을 꼭 메고 간다. “옷이 길에 버리는 옷이라도 거기 있으면, 신문이라도 거기(가방에) 담으면 창피하지가 않다. 구루마 끌고 다니면 보이잖아.

109) 소준철·서종건, 위의 책: 70-71쪽.

그래서 안 갖고 와. [가방에다] 별거 다 주워가지고 와.”

좁는데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무작정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사 가는 사람이 있는지 눈여겨 본다. 특히, 이사대행업체의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한다. “이사 간 사람들. 이삿짐센터 있을 때는 분명히 거기서 나오거든 그런 게 갖다 주는 거지. 그럼 내가 필요한 거 이제 가져오는 거야.”

앞서 주민센터에서 배출하는 폐지를 요구하며 “창피”함을 감내한다. 이 일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이 아닌 또 다른 ‘식구(食口)’인 경로당 노인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운반수단을 들고 다니는 날엔, 눈칫밥을 주기도 한다. “그걸 또 왜 들고댕겨. 들고댕기면 ... 주책이라고.”

어떤 경우에는 “[노인들이 뭐라고] 그래”서 “나 여기서, 노인정에서 훔쳐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변명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결국은 모은 재활용품을 팔아 사적인 소득을 얻지 않느냐는 의심이다. 그러나 A는 ‘경로당의 소득’, ‘자신의 소득’, ‘팔지 않고 자신이 쓸 것’, ‘팔지 않고 나눠줄 것’을 명확히 나누어 수집한다.

‘팔 것’은 앞서 살펴본 대로 주차장을 관리하다 주운 것들이나 주민센터에서 받아 오는 신문지 같은 것들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박스를 줍진 않는다. 단가도 적고, 집이나 경로당에서나 “쌍을 데가 없어”서다. 즉, 팔 것은 대개 보관을 해둬다가 판매를 한다.

경로당에서 보관할 때, 부회장으로서 다른 노인들의 불평을 최소화하는 데 신경을 쓴다. 즉, 박스를 잘 모아두고, 모아놓아 생기는 쓸모를 노인들에게 설명한다. “내가 박스를 착착 쌓아놓거든. 지저분할까 봐. 그렇게 해서 요거 팔면 또 커피 살거니까요. 지저분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 내가 이걸 내 개인 사유로 하는 거 아니니까, 보태는 거니까 내가 돈을 못 쓰니까 그런 거라도 내가 해야 하잖아.”

그러나 집에서 보관하는 것은 다르다. “엉망이야, 너무 지저분해. 두서가 없어서 지저분해서 못 봐. 나만 요렇게 댕겨.”라며, 자신이 전세로 사는 한옥 마당에 잔

뜩 널브러져 있어, 자신의 어깨너비만큼의 길만 나 있다는 몸짓을 취한다.

자신이 쓰고,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것은 대개 옷과 신발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옷을 주워 입는 것은 아니다. 노인정에 한두 사람 정도가 “메이커 있는 옷”만 사입지만, A는 “그런 걸 안 사입잖아”라며, 자신은 옷 사는 돈을 아낀다고 힘주어 말한다. 만약 산다 해도 “만 원짜리 이상 사입는 일이 없”고, “누가 주면 입고”, “오천 원, 만 원”짜리 정도의 옷을 산다.

그럼에도 버린 옷이지만, “너무 좋은 옷(을 사람들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라고 한다. 덕분에 “이름 있는 것”만 입고, 굳이 “사 입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옷과 신발은 “(남들이) 버리는 걸 주워 신”는다. 버리는 옷이나 신발이 많이 나오기에, “밀려가며[물려가며] 신어, ... 물려가며 신는다.” 집에도 열 켄레 정도의 주워온 신발이 있고, 색도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입을만한 것은 더 주워다가 경로당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구슬한 당일만 하더라도 “회장님, 신사복 두 벌. 얻고 보니까 신사복이 있어. 또 이런 거. 츠리닝 바지 하나 주고. 이런 거 남방 하나도 갖다 줬는데. 다 주서다가[주워다가].”

필요에 따라 경로당에 그릇을 가져다 놓기도 했다. 이사 가며 버린 그릇들은 A의 눈에 “쓸만한 것들”이었고, 그 양이 적잖았다. 나누는 일은 단지 온정적인 공유의 일만이 아니다.

우선, A라는 사람의 인생살이에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살면 옛날에는 없지만, 인제는 자기가 게을러서 못하는데, 부지런하면 어라든지[얼마든지] 살아.”라고.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고 아침에도 잠 안 오면 일찍 땀겨봐. 많이 내놔. 그러니까 지금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살아.”

이렇게 폐지수집은 자신의 부지런함을 확인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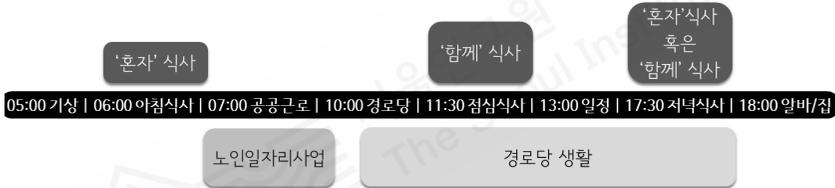
04

도시노인의 한 끼 식사

- 1_ '함께' 식사
- 2_ '혼자' 식사
- 3_ 한 끼 식사가 지니는 의미

04 | 도시노인의 한 끼 식사

A와 인터뷰 도중, A는 자신이 먹는 것에 신경을 크게 쓰지 않음을 “그러니깐 반찬, 나 김치 세 쪽”이면 한 끼를 먹는다는 말로 드러냈다. 연구자는 A가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한 끼 식사가 그녀의 생활에서 지니는 의미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A가 한 끼 식사로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연구자는 A가 자신을 둘러싼 자원들을 이용·공유하여 식생활을 꾸려 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선 한 끼 식사를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하는지가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장에서는 A가 어떻게 자원을 조달하여 어디서 누구와 식생활을 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4-1] A의 주요 일과와 식사

1_ '함께' 식사

1) 경로당 “식구”와의 식사

(1) 식사방식

A가 일상적으로 타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소는 ○○경로당 여자방이다. ○○경로당에서 남자방과 여자방은 식사와 관련해서는 따로 운영된다. 여자방은 경로당 운영시간과 짝, 부식비 등의 부족으로 점심식사만을 하며 이는 남자방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남자방에서는 한 달 내내 점심식사가 가능한 반면, 여자방에서의 점심식은 한 달 중 20일만 가능하다.

○○경로당 여자방에서 한 달에 식사가 가능한 날이 20일인 가장 큰 이유는 식사당번에 있다. ○○경로당 여자방에서 식사당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0일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경로당 식사도우미를 담당하고 계시는 여성 어르신이고 나머지 10일은 2인 1조로 여성 어르신들이 조를 나누어 돌아가면서 한다. 현재 상시적으로 식사를 하는 인원이 적은 관계로 항상 한 달에 4~5일은 식사당번이 없다. 그래서 현재에는 주말을 제외한 20일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나머지 날은 점심식사를 각자 알아서 하고 온다.

○○경로당 남자방에서도 식사도우미가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로 일을 하는 기간은 한 달 중 10일이다. 하지만 C에 따르면 남성 어르신들은 식사준비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상시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만 원씩 후원하여 식사도우미 어르신에게 드리고 한 달 동안의 점심식사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A는 지역종교 단체 중 한 곳인 A교회에서 노인대학을 하는 매주 수요일엔 경로당에서 식사하지 않고 A교회에서 주는 점심식사를 먹는다. 그리고 점심 약속이 있는 때를 제외하면 항상 경로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A는 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심식사를 위한 식재료도 구입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따로 식사당번을 맡지 않는다.

점심식사가 있는 날은 오전 일찍부터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모이고 대략 오전 11시 40분이면 점심식사를 시작한다. ○○경로당 여자방에서 오전 11시 40분에 점심식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 A는 경로당에 식사하러 오시는 어르신 중 아침을 거르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허기를 달래들이고자 오전 11시 40분이면 점심식사를 한다고 했다.

점심식사는 경로당에 있는 교자상 2개를 펴고 사람이 많으면 주방 근처의 식탁에 까지 사람이 앉는다. 교자상과 식탁 위에 밥과 반찬을 놓는데 밥과 찌개는 1인당 각각 하나씩이고 반찬류는 접시에 놓고 같이 먹는다. 밥은 백미로 지어 밥공기에

담는데 그 양이 적지 않다.¹¹⁰⁾ 반찬은 김치를 포함해 주로 2~3가지 정도이다. 식사는 12시를 조금 넘어가면 대부분 끝나는데 식사 후에는 많은 사람이 포트에 물을 끓인 후 믹스커피를 타서 후식으로 마신다.

○○경로당 여자방에서는 공식적으로 경로당이 문을 닫는 여섯 시 이후에 저녁은 먹을 수 없다. 저녁식사까지 경로당에서 하길 원하는 사람이 꽤 있으나 경로당에 조달되는 쌀과 부식이 부족하므로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들이 존재하는데 ○○경로당 여자방은 평소보다 점심식사 인원이 적거나 점심밥을 많이 해서 점심을 먹고 나서도 밥이 많이 남았을 때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다.

(2) 받아 오는 쌀

A가 경로당에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식생활과 관련한 자원을 행정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어서이다. 대표적인 관련 법조항이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이다.

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시의 <2016년 자치구 경로당 업무 관련 종합지침>을 보면 서울시는 경로당 예산지원과 관련해 크게 운영비·난방비·냉방비·양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경로당에서 식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운영비와 양곡비이다.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58%, 서대문구에서 42%를 지원하여 ○○경로당의 경우 매달 35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이 중 임원진은 매달 운영비 35만 원 중 각각 10만 원씩을 남자방과 여자방에 부식비로 지급하고 있다.

110) 연구자가 직접 식사를 했던 경험에 빗대어 말하자면 연구자(30대 남성)가 먹는 정도의 밥양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양곡비는 중앙정부에서 10%, 서울시에서 52%, 서대문구에서 38%를 보조하여 한 포에 43,340원인 백미 20kg짜리 총 6포를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각각 3포 대씩 총 120kg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A와 같이 ○○경로당에서 상시적으로 점심식사를 하는 인원은 여자방에서 13명 내외¹¹¹⁾, 남자방에서는 16명 내외이다.¹¹²⁾ 정부에서 지원하는 쌀만 하더라도 2016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62.9kg으로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가정할 때 한 끼에 소비되는 쌀만 약 57g이다. 나이에 따른 섭취량의 편차를 고려하여 55g으로 산정하면 경로당의 하루 쌀 소비량만 1.595kg이다.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백미만으로는 75일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점심식사에서 필요한 주요자원 중 하나가 쌀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최근엔 남아도는 쌀 재고량과 가격하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한국인들의 주요 에너지원 중 전체 섭취량의 2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식재료가 백미임은 변하지 않았다. 문화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요새 사람”들과 “우리”가 먹는 것은 “다르다”. 1980년 이전에는 쌀과 잡곡류 등을 삶아서 품을 들인 밥이 양적으로도 그리고 식사 안에서 가지는 의미 면에서도 한국인 식사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다.¹¹³⁾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보자면 1940년대를 전후하여 태어난 70대 이상이 대다수인 ○○경로당 노인들에게 밥은 에너지원으로서의 식사와 문화적 의미로서의 식사라는 두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경로당에서 밥을 만드는 쌀(백미)은 가장 중요한 식재료라고 할 수 있다.

111) A는 현재 ○○경로당 여자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인원이 북아현동 일대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이주와 노환으로 인한 사망과 병환 등 때문에 꾸준히 감소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가장 많았을 때에는 여자경로당에만 3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다.[참조: 2016년 10월 27일 A 인터뷰]

112) 2016년 6월 16일 C 인터뷰

113) 주영하, 2011, 『음식인문학-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311쪽.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쌀을 어디서 조달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경로당은 운영비나 기타 비용으로 쌀을 구입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체적으로도 밥을 할 때 최대한 “알뜰”하게 밥하려고 노력한다.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로는 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경로당에 쌀이 부족하면 주민센터에 연락을 취해 쌀을 더 줄 것을 요청한다. 이마저도 부족하면 A 표현에 의하면 쌀을 “동냥”하러 다닌다. ○○경로당이 쌀의 부족분을 조달하는 주요 통로는 지역 종교단체이다. 특히 A교회는 C가 오랜 기간 활동했던 교회로서 부족한 쌀을 A교회로부터 자주 지원받는다.¹¹⁴⁾

연구자가 경로당 회원들을 만났을 때 서울시를 통해 연구지원을 받는다고 하자 경로당 회원들은 쌀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도록 연구자에게 요청했다. 그/녀들은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경로당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했고 이런 요구사항들은 다른 경로당에서도 연구자가 들을 수 있었던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었다. △△경로당도 구청에서 주는 쌀 외에도 주로 교회와 복지관을 통해 얻고 있다고 했다.

(3) 반찬과 간식 메우기

부식비도 넉넉하지 않는데 ○○경로당은 운영비 35만 원 중 20만 원을 부식비로 쓴다. 식사를 각각 따로 하는 여자경로당과 남자방에 10만 원씩을 한 달 부식비로 주는데 여자경로당에서는 대략 한 달에 20일을 같이 식사를 해 먹는다. 공공기관에서 주는 운영비로는 한 끼에 5,000원 정도를 부식비로 충당하는 것이다. 즉, 경로당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쌀과 운영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로당 임원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 회원들은 다양한 경로로 식생활과 관련한 자원들을 조달해 온다.

114) 교회는 이와 함께 1주에 한 번씩 경로대학을 운영하며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인근 지역의 C교회는 화요일, A교회는 수요일, D교회는 목요일, B교회는 금요일에 경로대학을 운영한다. 특히, A교회는 참여한 노인들에게 쌀 1kg을 제공하고, 선별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여도 부족한 부식비는 어디선가 다른 자원들을 동원해 메워야 한다. A가 주로 점심을 먹는 ○○경로당 여자경로당은 ○○경로당 남자 방과 달리 상시적으로 점심을 함께 먹는 사람들에게 부식비를 보충하기 위한 식 사비를 따로 거두지는 않는다. 여자경로당도 따로 부식비를 거두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A는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경로당도 상시적으로 점심식사를 같이하는 회원들의 수가 지금보다 많았고 이들이 월 만 원 정도를 각출해서 부족한 부식비를 보충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는 상시적으로 점심을 같이 하는 회원들이 적기 때문에 만 원씩 각출하여 부식비를 모아도 큰돈이 되지 않을 뿐더러 회원들이 부식비를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감당한다고 했다.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쌀과 달리 부식비는 내부적 자원조달에 힘써야 한다. “알뜰”하게 써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는 자세는 기본이다. A는 임원으로 서 점심식사 식재료를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부식비를 절감하기 위해 식재 료가 싼 곳을 찾아 구입한다. 그리고 정기적이진 않지만 A가 야채장수에게서 일 을 하고 받아오는 식재료들도 점심식사 준비를 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에 여자경 로당 회원들이 각자의 집에서 반찬이나 식재료를 종종 가지고 와 같이 나눠 먹음 으로서 경로당의 점심식사는 이뤄지고 유지된다.

○○경로당 여자방은 현재 식사도우미가 없고 대신에 순번을 정한 후 돌아가면서 점심식사를 준비한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반찬은 1~3개를 하고 남으면 냉 장고에 넣어두는데¹¹⁵⁾남는 것이 적지 않다. 남은 반찬 중 버리는 것도 있지만 A가 저녁을 먹을 때 먹기도 하고 같은 경로당의 남성임원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그만큼 반찬이 있기 때문에 ‘반찬 같은 거 걱정’은 하지 않는다.¹¹⁶⁾

115) 2016년 6월 16일

116) 여기에서 반찬의 부족은 절대적인 양에서 반찬이 부족하지 않다고 해석해야 한다.

○○경로당 식생활에서 쌀과 부식 이외에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기호품이다. A를 포함해 ○○경로당 여자경로당 회원들이 즐기는 대표적인 기호품은 믹스커피이다. 믹스커피는 점심식사 후에 많은 어른신이 한 잔씩 꼭 드시는 기호품으로 경로당의 필수품 중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믹스커피의 인기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믹스커피의 인기는 비단 ○○경로당에서만이 아니라 △△경로당도 마찬가지이다. △△경로당에서도 점심식사 후 같이 점심식사 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믹스커피를 타서 후식으로 마셨다.

식사 후 믹스커피를 마시는 것은 공통되지만 믹스커피를 조달하는 방식은 차이를 보인다. ○○ 경로당 여자경로당은 “있는” 사람들이 종종 믹스커피를 사서 비치해준다. 혹은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A를 주축으로 경로당 회원 중 일부가 폐지수집에 참여한다. 그 결과 “티끌 모아 태산”이란 말처럼 100~130kg의 폐지·의류·신발 등이 모이고 그것을 판 돈으로 믹스커피를 구입한다. 반면 A와 같은 경로당이지만 남자방에서는 어른신들이 돈을 모아서 비치해두고 △△경로당에선 경로당 운영비에서 커피를 조달한다. 조달하는 방식 역시 일관된 형태로 나타나진 않지만 믹스커피가 경로당에선 필수적 기호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자방이나 △△경로당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커피를 구입하고 A가 폐지수집을 한 돈으로 믹스커피를 구입하는 것에 회원들이 반발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기호품으로 술이 있다. A가 있는 ○○경로당 여자경로당에서는 별로 마시지 않고 A도 술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경로당에서 전혀 술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연구자가 2016년 9월 6일 관찰한 바에 따르면 남성 어른신들이 여자경로당으로 술을 가져와서 식탁에서 여자 어른신 중 일부와 술을 같이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다. ○○경로당 남자방에서 종종 남성 어른신들이 모여서 막걸리 등을 마시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여자경로당은 경로당의 남성 어른신들이 여자경로당으로 오는 경우에 주로 술자리가 마련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런 술자리에서 마시는 술은 주로 술자리를 주도하는 누군가가 자신의 사비로 사서 오는 술이 많았다.

△△경로당에서는 남성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여성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려 경로당 안에서 술을 마셨다. △△경로당에서는 반주로 술을 먹기도 하지만 식사가 끝난 후 부엌 안에서 교자상을 펴 놓고 남은 찌개나 반찬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 마시기도 했다. △△경로당에서 술은 회원들의 협찬을 통해 마련되는데 D는 누군가 술을 샀다고 하면 경로당 내에 있는 칠판에 그 이름을 적어 놓는다고 했다.

이렇게 경로당 내에서도 술자리는 종종 마련되는데 이 술자리에서 마시는 술은 소주와 막걸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술이 믹스커피만큼 대부분의 사람이 즐기는 기호품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경로당 회원 중에서도 술을 좋아하는 일부가 경로당으로 사적으로 조달할 뿐이다.

(4) “식구” 간의 다양한 갈등

식생활과 관련하여 자원조달을 하려는 노력이 항상 경로당 회원들에게 환영받지는 않는다. 일례로 ○○경로당 여자경로당에서 경로당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던 한 여성 어르신은 딸의 집에서 반찬을 해주면서 항상 경로당에 가져가 같이 나눠 먹기 위해 많은 양을 해서 경로당으로 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런데 같이 점심을 먹는 또 다른 여성 어르신에게 “딸네에서 반찬을 훔쳐온다.”라는 비난을 들었다고 한다. 비난을 들은 어르신은 경로당을 위해 한다고 했던 행동이었기에 그에 대한 상실감이 컸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경로당에 식사하러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A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는 야채장수 알바를 한 대가로 식재료를 얻어 경로당의 식사에 보태는데 이렇게 조달한 식재료로 인해 A는 경로당 회원들의 오해를 사기도 했다. 2016년 10월 27일 연구자가 A를 만나기 위해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경로당 안에서 잠시 고성(高聲)이 오가는 모습을 보았다. A에게 그 사정을 들어보니 ○○경로당 여자경로당 내에서도 고령(高齡)에 속하는 여성 회원 한 분이 A가 6,000원어치의 대파를 야채장수에게 구입했다

고 생각하고 신선하지 않은 대파를 왜 사왔느냐고 A에게 항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가 경로당에 가지고 간 대파는 부식비에서 구입한 식재료가 아니라 A가 야채장수의 잡일을 도와주고 얻어온 대파였기에 A는 여성 회원에게 항의를 일축하고 해명하다가 고성인 오간 것이라고 했다.

경로당 식생활에서 자원조달 과정의 갈등보다 더 일상적인 갈등은 자원의 공유와 이용과정에서 나타난다. 추석 전날이었던 2016년 9월 13일 연구자는 A와 약속을 잡고 배를 몇 개 사서 ○○경로당 여자방을 방문했다. 마침 A씨는 잠시 밖으로 나가 있어서 부재 중이었으나 연구자는 여자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사온 배를 건넸다. 연구자는 여자방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과일을 먹을 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이 먹는 것처럼 자유롭게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먹고 덜 먹고 싶은 사람은 덜 먹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연구자의 예상은 빗나갔다. 한 여성이 칼을 가지고 사온 배들을 4등분으로 잘라서 하나씩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배분하였다. 여자방에 있던 여성들은 더 달라, 덜 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익숙한 듯 하나씩 받았다. 당일 A에게 굳이 한 명이 정확히 잘라서 나눠주는 이유에 대해 물으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연구자는 2016년 11월 4일의 관찰을 통해 ○○경로당 여자방 식생활의 메커니즘 속에서 동등하게 분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날의 메뉴 중 하나는 동태찌개였는데 한 여성 회원이 식사당번인 다른 회원에게 불만을 제기했다. 그 불만은 자신의 동태찌개에 동태가 “한 토막”도 들어있지 않다는 불만이었다. 그날 만든 동태찌개에 쓰인 동태는 여섯 마리였고 식사를 같이한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의 사람이 나눠 먹기에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양이었다. 식사당번은 자신이 그 사람만 특별히 적게 준 것이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불만을 제기한 회원과 식사당번 사이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식사가 끝난 후 당일 식사당번이었던 회원은 “밥을 안 해야 해 안 할거야.”라는 말을 다른 회원들에게 했다.

똑같이 1인당 3개씩 배분된 굶을 먹으며 회원들 사이에 식사당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경로당의 임원인 A는 현재 여자방의 식사당번 제도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경로당 입회를 문의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당번과 식사비 등 〇〇경로당 여자방의 식생활이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회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자원을 조달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공유와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식생활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그 개별성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특히 현재 경로당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노인’이 되기 전까지 대부분 가족의 ‘어머니’로서 가족들의 식생활과 관련하여 여러 자원을 조달하고 이용·공유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어르신들 저마다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저마다의 ‘방식’과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한 상태에서 〇〇경로당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여 점심을 같이 먹는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위에서 말한 갈등이 필연적이다.

다른 이유는 경로당 “식구”들이 느슨한 결합체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경로당은 같은 권리를 가진 회원들의 집합이다. 물론 경로당 내의 모든 회원의 관계가 평등한 것은 아니다. 임원단을 중심으로 한 조직과 문자화된 내규가 있고 암묵적으로는 ‘나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위계가 존재하기에 이에 따른 처신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경로당의 회원들은 매년 가입이 갱신되어 올해에는 회비를 내고 경로당에 등록했지만 다음 해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나오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받지 않기에 경로당이란 집단의 구속력은 매우 약하다. 이처럼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로당의 “식구”들은 위와 같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서로 감내하여 넘어갈 만큼 강한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뜻한다.

2) 돌려받는 ‘외식’, 함께 하는 ‘외식’

[표 4-1] 2014년 연령대별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연령대	응답자 수	하루 1회 이상 외식률(%)
1~2세	188	14.3
3~5세	283	41.3
6~11세	508	31.8
12~18세	500	47.7
19~29세	567	38.3
30~49세	1,807	36.3
50~64세	1,436	23.7
65세 이상	1,513	4.0

2014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추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응답자 1,513명 중 4%가 하루 1회 이상 외식을 한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연령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고 50~64세에 비해서도 무려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 통계에서의 ‘외식’이란 집에서 직접 해 먹지 아니하고 밖에서 음식을 사 먹는 것, 또는 그런 식사를 뜻하는 사전적 의미와 같은 것이다.¹¹⁷⁾

A는 거의 대부분의 식사를 경로당과 교회 등 ‘집’ 밖에서 해결한다는 점에서 ‘외식’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화폐교환을 통해 식사라는 서비스를 구입한다는 지점에서 A는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마치 통계와 통계 사이의 경계에 A가 서 있는 듯하다. 그래서 연구자가 마음대로 설정하고자 하는 A의 ‘외식’은 식사라는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파는 곳에서 화폐를 매개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하고자 한다.

117)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위와 같은 관점에서 ‘외식’을 보자면 A가 ‘외식’을 하는 빈도는 매우 낮고 특히 자신의 돈을 지급하여 외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혼자 외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A는 외식을 하더라도 사적인 관계가 있는 타인들과 주로 ‘함께’ 먹는다.

A와 ‘외식’을 함께 하는 타인들의 범위에서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A와 가족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관계가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족과 외식을 하는 경우는 생일과 같이 ‘특별한’ 날에 한정된다. 이는 A와 가까운 관계를 지닌 B와 조금 다른데 B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종종 외식을 가는데 A와 B가 가족과 함께하는 ‘외식’의 빈도 수가 다른 이유는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지도 문제이지만 결정적으로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A가 주로 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경로당에서 늘 점심식사를 같이 먹는 “식구”들 중에서도 화투를 같이 쳐서 사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다. 주로 “잘 사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다가 경로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면 “내가 오늘 저녁 살게”라고 하면서 A를 데리고 가 식사를 산다.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인물이 매번 사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면서” 산다.

경우에 따라선 ○○경로당 남자방의 남성 어르신들이 살 때도 있고 임원단으로 같이 활동 중인 C와 같이 경로당 임원의 자격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얻어먹고” 오기도 한다. 그러나 A가 이들에게 ‘외식’을 사준 것에 대한 답례로 똑같이 ‘외식’을 대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경로당에서는 봄, 가을로 야유회를 가는데 이때도 A는 ‘외식’을 한다. 특히 야유회는 ○○경로당의 큰 행사로 상시적으로 경로당을 찾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로당에 연회비 내고 등록된 인원들도 많이 참석한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필요하지만 대당 “60만 원”이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지 못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포천 인근의 갈빛집으로 간다. 이 갈빛집에 가는 이유는 1인당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급하면 갈빛집에서 버스를 ○○경로당까지 보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그녀는 북아현동 일대에서 “회장이란 회장은 다”했던 생애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통한 사적 관계망만을 지니고 그/녀들과 ‘외식’을 할까? 그 이유는 A가 경로당에서 활동할 때쯤 기존의 사적 관계가 다 끊어졌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적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A가 휴대전화번호를 “살 적마다” 변경했고 북아현동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사적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 중 상당수가 이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가 맺고 있던 기존의 사적 관계가 끊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A가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A는 기존의 사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내가 있음으로써 될 작게 보답”해야 자신이 기존에 사적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찾아 댕”길 수 있는데 현재 자신의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적 관계가 끊어진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통해 A가 경로당에서 사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외식에서 종종 얻어먹을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A는 ‘외식’을 할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돌아가면서” 식사를 사지는 못하지만, 경로당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활동을 통해 “보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 역시 A가 ○○경로당을 위해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A에게 식사를 사준다고 해석된다.

2_ ‘혼자’ 식사

A는 세 끼 중 경로당에서 주로 먹는 점심을 제외한 아침과 ‘외식’을 할 때를 제외한 저녁을 ‘혼자’ 먹는다. 하지만 아침식사를 하는 장소와 저녁식사를 하는 장소는 다르다. A는 아침을 오전 6~7시 사이에 집에서 먹는다. A에게 아침식사는 “아침 허기질 때” 먹는 식사에 지나지 않기에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 그래서 A의 집에는 기본적인 조리도구들이 있지만 조리도구를 적극 이용해 요리를 만들

어 먹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조리가 간단하고 소요되는 시간이 길지 않은 찬밥, 누른 밥, 빵에 커피 혹은 약식(藥食) 등을 즐겨 먹는다.

A는 예외적으로 경로당 회원들과 함께 남은 밥과 반찬을 저녁에 경로당에서 먹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혼자’ 경로당에서 점심때 남은 밥과 반찬 혹은 도시락사업을 통해 받은 도시락을 먹는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경로당에서 공식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점심뿐이지만 A는 경로당 임원으로서 ○○여자경로당을 여단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A가 저녁시간에 혼자 경로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마냥 여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바쁜데 저녁 식사를 전후로 여러 일정이 있기 때문에 A는 바빠 움직인다. 우선 “할머니들 있으면 (저녁을) 못” 먹기 때문에 경로당의 다른 여성들에게 “여섯 시 되면 빨리 문 닫게 가요”라고 요청을 해서 그녀들을 보낸다. 그 후 주민센터가 문을 닫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나온 폐지를 가지고 온 뒤 밥과 반찬을 구해 “문 닫고 얼른 떠먹어”은 후에 야채장수 “알바”를 간다.¹¹⁸⁾

A는 여러 경로를 통해 모은 생계비와 종교단체와 지역사회의 지원, 그리고 도시락배달사업 등 크게 3가지 경로로 자원을 조달한다. 아침식사용으로 먹는 음식 가운데 찬밥과 누른 밥은 교회와 주변 지인들을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조달하는 반면, 빵과 약식은 A가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음식이다.

그래서 A는 빵과 약식을 선택할 때 가격을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운다.¹¹⁹⁾ 빵과 같은 경우 주로 ○○경로당 인근에 있는 빵집을 이용하는데 그곳에서 “비싼 것”

118) A의 바쁜 저녁일정을 연구자도 관찰한 적이 있다. 2016년 8월 17일 A와 인터뷰를 진행한 후 A에게 저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는데 경로당의 솥에 밥을 넣어 놓고 왔다면 인터뷰가 끝난 후 경로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바로 야채장수 “알바” 갈 예정이라고 대답했었다. [참조: 2016년 8월 17일 A 인터뷰]

119) A가 빵을 살 때 꼭 자신의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격에 신경 쓴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 2016년 10월 27일 연구자가 A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후 연구자는 A에게 경로당에 가져가 다른 어르신들과 드시라고 빵집에 들어가 빵을 구입했다. 그때에도 A는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빵보다 싼 가격의 빵을 골랐고 연구자가 비싼 가격의 빵을 고르려 하자 그런 빵보다 싼 가격의 빵을 고를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 [참조: 2016년 10월 27일 A 인터뷰]

은 “필요” 하지 않기에 “제일 싼” “앙꼬빵”이나 “토스트” 등을 주로 구입한다. 약식은 “이천 원짜리가 제일 비싼” 것으로 평소에는 잘 안 사서 먹지만 “어떻게 하다가” 먹는 경우도 있다.

A는 도시락배달사업을 통해서도 ‘혼자’하는 식사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한다. A가 현재 받고 있는 도시락배달사업은 2군데이다. 그중 한 곳으로부터는 1주일에 2차례 도시락을 배달받는다. A가 이곳으로부터 도시락배달을 받게 된 것은 서대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생활관리사를 통해서였다. 생활관리사는 서대문구 내 독거노인 중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있었다.

이때 주민센터로부터 경로당 임원으로 활동 중이지만 혼자 살고 있는 A를 만나 그녀의 상황을 듣게 되었다. 생활관리사는 A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지만, 복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는 곳과 A를 연결시켜 줬다. 이렇게 배달받게 된 도시락은 밥이 오지 않고 반찬만 오는데 그 양이 넉넉해 집에서는 “반찬을 안”하게 되고 “돈도 안 들어” 간다. A에게 도시락 배달을 받게 해준 생활관리사는 A를 구세군과도 연결했다. 그 결과로 A는 도시락과 같이 상시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쌀, 콩기름, 설탕, 라면, 밀가루 등을 지원받은 적도 있다.

A가 도시락배달을 하나 더 받는 곳은 ○○대학교 종합복지관이다. ○○대학교 종합복지관은 북아현동, 천연동, 연희동을 중심으로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다. A와 ○○대학교 종합복지관은 앞서 봤던 바와 같이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대학교 종합복지관은 A의 형편을 듣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학교 종합복지관에선 A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A는 “반찬 같은 거 여유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칙적으로 A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마침 ○○대학교 종합복지관이 “여유”가 있어서 ○○경로당으로 2개의 도시락이 배달되어 현재에는 각각 A와 C가 받고 있다. ○○대학교 종합복지관에서 주는

도시락도 A가 다른 곳에서 받고 있는 도시락과 달리 밥과 반찬이 같이 온다. 단, 그 양에서는 한 끼 먹을 양만 받는다.

A가 ○○대학교 종합복지관에 “반찬 같은 거”를 요청한 배경에는 A가 임원 활동을 하던 중에 ○○여자경로당 차원에서 ○○대학교 종합복지관의 요청으로 도시락배달사업에 동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구자가 사회복지사와 이야기하던 도중 어르신들의 식사와 어르신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 말하면서

“늙어서 내가 이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을 할 힘도 없고, 밥을 먹으려면 밥도, 쌀도 있어야 되고, 또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김치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김치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을 그냥 줘요면 좋겠다. 가장 큰 욕구가 도시락, 안 되면 뭐 반찬이라도 그런 것도 있고.”¹²⁰⁾

라고 했다. A 역시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3_한 끼 식사가 지니는 의미

A의 생활에는 ‘함께’하는 식사와 ‘혼자’하는 식사가 혼재되어 있다. 직접적인 자원 조달의 경로와 이용방식, 장소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혼자’하는 식사와 ‘함께’하는 식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경로당을 매개로 A의 생활 속에서 유기적 관계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A가 ‘혼자’ 먹는 식사를 위해 조달하는 자원 중 ○○대학교 종합복지관으로부터의 도시락배달사업과 지역사회 및 교회에서 조달한 자원, 개인 생계비의 상당 부분은 경로당을 매개로 획득하는 자원이다. 그리고 식사장소

120) 2015년 8월 19일 사회복지사 G 인터뷰

에서도 아침은 집에서 먹지만 ‘혼자’ 저녁을 먹는 장소로는 경로당을 이용한다. 이 역시 A가 경로당 활동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된 자원이다. 이렇게 ‘혼자’ 먹는 식사와 경로당 활동이 연결되어 있다.

A가 임원으로서 경로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根底)에는 경로당에서 A가 임원으로서 해주길 바라는 ‘일’이 있다. 그 ‘일’의 중심축 중 하나는 경로당 회원들이 ‘함께’ 먹는 식사에 원활하게 자원을 조달·이용·공유하는 ‘일’이다. 물론 A가 ‘함께’ 먹는 식사와 관련해서 모든 자원을 조달·이용·공유하는 데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한 여러 ‘일’들을 담당하고 A 자신 역시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에 참여해 ‘식구’가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항상 환대만 하지 않으며 내부에는 긴장이 내재되어 있고 특정한 사건들을 계기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즉 A의 한 끼 식사는 자원을 조달·이용·공유하는 과정인 동시에 결과로서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자원조달의 결과인 식사를 통해 A가 에너지를 얻고 다시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여러 활동을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자는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원으로서 한 끼 식사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을 창출시키는 동력원이라는 역할에 주목하고 싶다. 이는 곧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조달·이용·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망이 파생되고 그 관계망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 끼 식사를 하게 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체제가 성립된 후 농식품체계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¹²¹⁾ A의 한 끼 식사 역시 이러한 시스템 속의 일부 분이다. 그러나 한 끼 식사 역시 또 다른 관계망을 만들어내는 동력원임을 고려하면 거대한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 끼 식사가 만들어내는 관계망들을 어떻게 변화 혹은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121) 윤병선, 『농업과 먹거리의 정치경제학』, 서울: 울력, 2015, 100~109쪽.

05

나오면서:
결론 및 정책 제언

05 | 나오면서: 결론 및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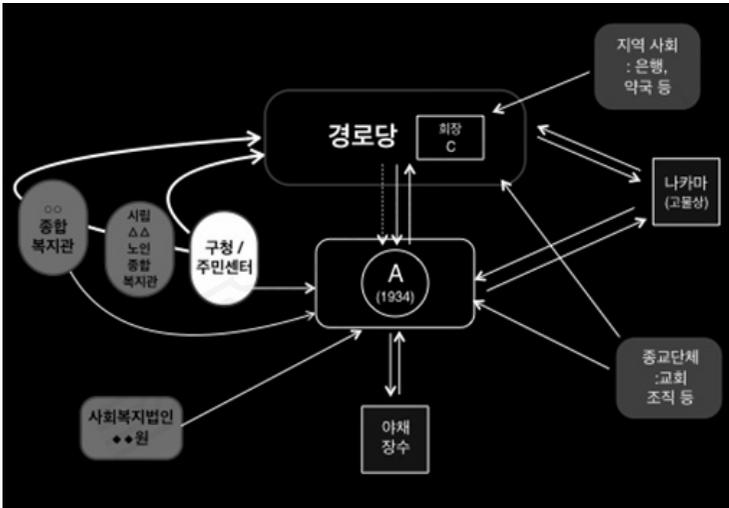
△△경로당에 찾아간 날, 연구자는 ‘식구’¹²²⁾라는 표현을 다시 읽게 됐다. 삼층 건물에 세 식구가 산다며, “층마다 다른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식구”를 찾아와서 고맙다는 한 여성노인의 말이 인상적이다. 가족은 아니지만 식구는 맞다는, 말솜씨가 가득한 사람이었다. 식구(食口)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전에는 한 집에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을 가리켰었다. 이제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라는 생각을 해본다. 핏줄의 연결이니 동향(同鄉)의 유무로 식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몇몇 노인들은 가족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 식구란 경로당 사람들만 남은 이들도 있다. 이 취약한 관계의 세상에서 때로는 예민하게 낱을 세우기도 하고 무덤덤하게 무시하며 넘어가더라도,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밥 한 끼를 나눠 먹으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식구가 아닐까. ‘관계’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한 것일 테다.

A의 삶을 돌이켜 보자. 나이에 상관없이 ‘노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전쟁통에 월남하여 고향사람들 덕에 자리를 겨우 잡아 살았다. 개발과 독재의 시대에는 중등에 간 남편과 떨어져 친척 몇을 두고 홀로 아이 셋을 키웠다. 부족한 돈을 벌겠다고 인천에서 물건을 떼어 서울에다 팔았다. 장사꾼이었다. 그녀는 이 삶을 통해 “삶의 노하우”라는 것을 얻어낸 모양인 걸로도 보인다.

가난을 벗어던질 수는 없지만, 마땅히 쓸 유동자산이 없어 마냥 일하지 않고 자별

122) △△경로당은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다. 1층은 남성노인들, 2층은 여성노인들, 3층은 남성·여성 노인들이 모여 있다. 연구자들이 3층에 올라간 날이었는데, 3층의 노인들 가운데 여럿이 자신들은 ‘식구’라며, 혹은 ‘식구처럼’ 지낸다고 말을 했다. 그/녀들 대개는 가족이 아니다. 실제로 한 골목에 모여 사는 이웃이 아닌 경우도 다반사다. ‘식구’의 일반적인 쓰임과 다르지만, 경로당에서 ‘식구’라는 언어는 그/녀들을 연결하는 언어이며, 경로당에서 이뤄지는 주된 활동인 ‘식사’를 내비치는 언어이다.

수도 없는 그녀는 장사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굉장한 활동력과 연결력을 갖게 됐다. 장사를 위해 시작했던 사회활동과 그 안에서 임원으로 지내왔던 덕에, 자신의 ‘체면’이 활동과 생활에 미칠 파급을 정확히 이해한다. 이 ‘장사끼 있는 삶’은 여느 노인과도 달라서 노인의 일반적 삶이라 할 수 없는 독특한 지점이다. 그렇기에 ‘주책 맞은’ 일을 ‘해볼 만한’ 일로 바꾸려는 시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폐지수집 하는 일을 돈이 없어 하는 일이 아니라 믹스커피 백 개들이를 사기 위한 집단의 노력으로 이끌어내는 일 말이다. 삶의 긍정성과 일의 긍정성은 분명 다른 지점에 속해있다.



[그림 5-1] A를 중심으로 한 자원의 흐름

그러나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 몸이 늙어도 쉬기 힘든, 그녀의 노력은 끝날 수 있을까? 매년 초가 되면 일자리사업의 공고를 보고, 다른 노인들과 눈치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은 끝날 수 있을까? 적어도, “내가 키가 적어[작아] (아이들이) 키만 크게 자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후회해. 잘살 거라고 할걸”이라는 후회를 멈출 수 있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 “끝나지 않는 노력”은 청년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있다. 여기에는 노후 보장을 상상하지 못하며 늙은 저 세대의 그녀

들의 단면이기도 하다. 아마 경제위기를 겪으며 몸과 마음이 궁핍해진 베이비붐 세대들에 비하면 (더 나은) 근 미래가 아닐까.

또한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아니며, 차상위계층에 속하지도 않는다. 행정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그 바깥에 위치한 셈이다. 직접 말하는 것은 꺼렸지만, 행정상에 부양의무자가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에 그녀는 사회보장제도의 영역 가운데서도 일부에 국한된 몇 개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은 물론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최저생계비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은 차차상위 계층의 빈곤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 다름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 실제의 처지가 아니라 행정에 '침된 빈곤함'을 증명해야 하는 현 제도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게 된다. 경로당에 올해 이만큼의 쌀을 지원했다고 광고를 하지만, 80여 명이 생활하는 경로당에 120kg 정도의 쌀을 지원하는 데 그친다. 연간 1인당 쌀소비량이 62.9kg(2015년)인데 비해 그 양이 많지 않다.

이 지점에서 결국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 바깥의 도움을 구하거나,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실상 경로당의 임원들은 사회보장제도 바깥의 원조를 구해오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경로당의 처지는 A와도 많이 닮았다. 빈곤함을 온전히 증명하지 못하고,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 말이다.

그럼에도 경로당은 역동적이며, 활기차다. 경로가 어찌 되건 간에,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많은 자원이 모이고 쓰이는 공간이다. 그래서 단순한 여가의 공간이 아니라 임원을 구성하는 등의 위계적 특성이 있다. 이들에 대한 견제도 이뤄지고, 방어를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경로당은 일자리 정보나 활동프로그램, 먹거리 등이 한데 모여 있는 노인들의 플랫폼(platform)이다.

이 경로당이라는 플랫폼에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식사 자리다. A 역시 누군가와 함께 먹는 자리는 주로 경로당이다. 그리고 함께 외식한다 해도, 경로당의 사람들과 함께다. 이때 식사는 경로당 생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

나 경로당을 벗어난 A는 대개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럼에도 개인의 생계비, 도시락 배달 사업, 지역 내 민간의 지원을 통해 얻은 반찬과 쌀은 경로당 생활에서 건진 정보와 이로 인한 자신의 ‘노력’으로 받아 온 것들이다. 이때 식사는 경로당 생활의 결과이다. 즉, 식사와 경로당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한 덩어리이다. 자원을 조달하고, 이용하고, 공유하는 과정이자 결과인 셈이다.

이제 연구자들이 느낀 분명한 한계를 밝혀보겠다.

첫째는 한 노인과 관련한 전반적인 흐름을 그리는 데 완벽히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점, 동네에서 노인들을 직접 대하는 주민센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충실히 진행하지 못했다. 연구자의 노력이 부족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일이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 정도로 바쁜 상황이 겹쳤다.¹²³⁾ 그래서 구술에서 언급된 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역할이 행정영역에 국한된 것처럼 축소되어 보인다.

둘째는 “경로당 바깥의 노인들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의 생활도 무척 다양할 것이다. 지역 내의 다른 조직, 가령 교회나 성당, 절과 같은 종교기관에서의 활동, 어떤 경우는 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무언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다. 아마도 모두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은 사각지대의 노인들일 것이다. 가령 독거노인 가운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과 그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노인의 처지는 분명 다를 것이다. 연구자는 분명 이들에게 접근하질 못하였다.

셋째는 지역 내의 다양한 조직을 그릴 수는 없었다. 우선, 요사이 사회복지기관 가운데 영리, 즉, 장기요양보험제도 이후 영리목적의 재가노인센터가 늘어났다. 이를 이용하지 않는 A의 특성으로 바우처를 통해 연결되는 영리 목적의 사회복지

12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활발해져 계획대로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좁힐 수 있길 바란다. 다만, 그만큼의 인원을 충당하여 그렇잖아도 고강도로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란다.

서비스업체와 지역 노인과의 관계를 그릴 수는 없었다. 또한 지역 내에서 분명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시설과 개인의 관계를 놓친 것이 큰 문제이다. 서비스 중심으로만 서술하다 보니 발생한 한계이다.

이런 결론과 한계를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에 앞서 각 계급·계층에 따라 식자원 경로가 파악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살펴봤듯이 노인들은 ‘소비’와 (복지) ‘전달체계’로만 자원의 흐름을 설명할 수는 없다. 게다가 노동도 그 양상이 쉽게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밝혔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 습득한 노하우와 나이 든 몸으로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식자원도 계급·계층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령 경로당의 지원과 개인의 지원은 양뿐만 아니라 ‘나눠 먹을 만한지’ 여부가 무척 중요하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만을 먹는 사람들 역시 있다. 그렇기에 한 끼를 “같이 나눠 먹는” 일은 무척 중요하다. 단순한 밑반찬 외에, 한 끼의 식사를 잘 꾸릴 수 있는 식사 지원 역시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완벽한 체계의 정책이 아니라, 그들의 습관과 몸에 알맞은 제도들이다. 모든 논의는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도시에 사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가 필요하다.

둘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구자가 찾아다니던 북아현동의 경로당은 법적 역할인 ‘여가시설’을 충실히 하고 있다. 오히려 ‘여가시설’을 넘어 ‘공동생활시설’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길면 10시간가량을 한 공간에 모여 식사를 나눠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쉬기도 하며, 때로는 함께 일거리를 만들고 무언가를 배우러 간다. 그 규모도 작지 않다. ○○경로당을 예로 들자면, 상시로 3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한주에 4~5일가량 경로당에서 식사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임비·전기세·난방비 등을 지원하지만, 많은 측면에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경로당에서의 엄살이 아니라, 부족함이 그들을 다시 경로당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점을 강

조한다.

그중에서 식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경로당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임원 단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식사와 관련한 자원을 조달할 때의 어려움을 전한다. 보고서에도 적은 것과 같이 임원들은 경로당 점심식사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조달 코자 하고 경로당에 따라서는 임원들의 사비를 쓰는 사례도 보았다. 이런 과한 ‘봉사’는 불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쌀과 김치의 부족을 토로했다. 재정적 지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어렵다면, 쌀과 김치와 같이 필수적인 식품을 지원하며, 경로당 임원들과 지역사회,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의논할 기회를 생산하는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사람 소식통’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행정과 문서에 취약하다. 행정처리가 가능한 노인은 경로당에서 임원이 되기 일쑤다.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해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서울시에서 2014년 「어르신 정보 꾸러미」가 발간된 바 있다. 노인들 가운데 이 자료 집을 직접 읽은 경우는 무척 드물고, 현 시점에서 볼 때 과거 정보라 그 내용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소문은 오해를 낳기도 마련이다. 정보가 필요하며, 정리된 정보가 중요하다. 그/녀들이 자신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주민센터의 게시판, 혹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확인하라는 주문은 노인의 인지보다 ‘행정고시’를 먼저 생각한 발상이다. 반면에 소문은 무척 빨리 퍼진다. 노인들에게는 ‘소문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가령 어느 교회에 무슨 요일에 가면 쌀을 준다거나, 어디가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은 아주 기민하게 포착되고 적극 이용한다. 경로당은 소문 퍼트리기에 적절한 공간이며, 지역사회의 제도와 행정, 지역조직들의 노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는 승차장이다.

그렇기에 전문적으로 현장과 복지관, 현장과 주민센터, 현장과 지역자원을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즉, 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곳에 지역 내 민관

의 복지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소식통’이 필요하다. 혹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리라 본다. 지역 내 소식을 전하고 들으며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소식통’을 활동하게 하는 방식은 어떨까.¹²⁴⁾ 사업 중심의 사회복지사와 행정과 발굴에 집중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도 연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충분한 라포(rapport)의 형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24) 기존의 고위험군이나 위험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다루는 관리사와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사람들을 만나는 관리사가 있다면, 위험을 예방하고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근로기준법」.

「경향신문」.

서대문구청, 「서대문마당」, 각 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3월.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통계청, 2014, 「생명표」.

강운중, 2016, 「카메라 편견을 부탁해 - 낯선 생각을 권하는 가장 따뜻한 사진」.

고보선, 2014, “제주여성독거노인 사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3호, pp.57-92.

기시 마사히코, 2016, 김경원 옮김,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사회학자,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쓰다」.

김경혜, 2014, “서울노인의 경제·사회적 결핍 실태와 노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정책리포트」, 제 167호, pp.1-19.

김영숙·이근무·윤재영, 2012, “화교노인의 생애사 재구성을 통해 본 화교의 정체성”,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1호, pp.179-202.

김왕배, 2009, “한국전쟁의 기억과 반공 보수성의 고착: ‘남정리’ 한 부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42권 제1호, pp.39-79,

김태성·서석남, 2012, “생애사 연구를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 주거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7호, pp.381-402.

김희경, 2014, “노년에 대한 인류학 연구의 이론적 정향 검토”, 「한국문화인류학」, 제47권 제3호, pp.129-159,

남기철, 2016, “찾동에서 지향하는 민·관협력”, 「2016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컨퍼런스」.

- 남순현, 2015, “노인이 지각하는 발달단계별 일의 의미에 대한 생애사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70호, pp.113-148.
- 박미정, 2014, “여성독거노인 생애사에 나타난 빈곤의 오래된 새길”, 「노인복지연구」, 제66호, pp.7-35.
- 보건복지부, 2013,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형복지』: 28쪽.
- 보건복지부, 2016, 「201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 안내」.
- 배명선·김정자·최송식, 2016, “폐지수집노인의 생활실태와 노인복지정책적 대안”,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1호, pp.111-135.
- 배화숙, 2011, “가구유형별 노인의 사회서비스 이용경험과 영향요인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pp.1-24.
-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2016, 「보도자료: 2016 고령자 통계」.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2016a, 「2015년 서대문구 일자리대책 추진실적」.
-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2016b, 「2016년도 서대문구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 서대문구청, 2016, 「사회복지시설목록 20161031」.
- 서울시복지재단, 2014, 「제3기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 서울시복지재단, 2015,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제2기(2016-20년) 실행계획 수립」.
- 서종녀·김세림, 2015, 「서울시 자치구 복지 현황」.
- 서호철, 2010, “‘계 파동’의 계보 - 식민지기 윤번제 상호금융의 도입과 명암”, 「사회와 역사」, 제88호: pp.5-36.
- 석희정, 2013, “재혼여성노인의 정체성 상실과 재구성: 서사적 생애사 재구성 작업을 통해 본 정체성의 이중구조 탐색”,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4호, pp.189-217.
- 소준철·서종건, 2015,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일과 삶」.
- 송인주, 2015, 「서울시 재가노인 돌봄 서비스체계 협력방안 연구」.
- 안기덕, 2012,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pp.447-465.
- 양영자, 2011, “생애사 재구성 - 남성노인의 생애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2호, pp.275-302.

오창현·이성근, 2012, 『교동도의 시계수리공과 이발사』.

윤민석, 2015, 「서울시 일하는 노인 근로특성과 정책과제」.

○○종합사회복지관, 2016, 「좋은 친구」, 제161호.

○○종합사회복지관, 2016, 「○○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16-01호 “어르신무료급식지원사업(도시락/밑반찬)” 입찰 공고」.

이승현·최정운, 2014, 「일터, 고령 노동의 서글픈 현실」, 제정임 엮음, 『황혼길 서러워라』, pp.93-123.

이혁구·김진숙·이근무, 2011, “노인도박자들의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2권, pp.69-101.

이현경, 2015, 「사람, 장소, 현대」.

이호선, 201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 - “박카스 아줌마” 실태 조사 및 노인상담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0년, pp.150-165.

이호선, 2011,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피해 여성연구: 박카스 아줌마 실태조사 및 노인상담적 접근”, 『한국노년학』, 제31권 제3호, pp.489-503.

이호선, 2012,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연구2”,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pp.501-512.

이호선, 2013, “박카스아줌마 대상 성구매자 남성노인의 성구매 동기”,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제2호, pp.215-239.

이근홍·이화영, 2011,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경기도 경로당사업 관계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54호, pp.173~174.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제39권 제3호, pp.120-148.

전기복·이현심, 2014, “민간경비원의 직업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60세 이상 노인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6호, pp.213-230.

정근식·주운정, 2013, “사회사업에서 사회복지로 - ‘복지’ 개념과 제도의 변화”, 『사회와역사』, 제98호, pp.5-41.

정형호, 2011, “20세기 서울 지역 도시공동체의 특징과 변모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제17호: pp.285-320쪽.

주영하, 2011, 「음식인문학-음식으로 본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바우먼, 지그문트, 2014,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 2015, 「2014 국민건강통계 I: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2차년도 (201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http://www.law.go.kr/>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

<https://seoulsolution.kr/>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photoarchives.seoul.go.kr/> (서울사진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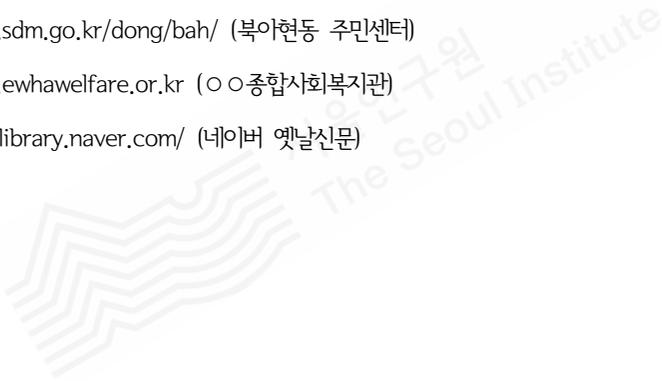
<https://www.sdm.go.kr> (서대문구청)

<http://sdmcouncil.go.kr> (서대문구의회)

<http://www.sdm.go.kr/dong/bah/> (북아현동 주민센터)

<http://www.ewhawelfare.or.kr> (○○종합사회복지관)

<http://newslibrary.naver.com/> (네이버 옛날신문)



작은연구 좋은서울 16-05

빈곤한 도시노인과 지역 내 자원의 흐름

발행인 _ 김수현

발행일 _ 2016년 10월 31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